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갈 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구원의 줄을 놓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여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가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5월 29일 (토) 제 1827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

제 45회 KAPC총회 5월 18-19일 세계소망교회에서 온오프로

제45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삼하11:6-17)'이라는 주제로 18일과 19일 양일간 세계소망교회를 본부로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어 신임 총회장에 오세훈 목사, 부총회장에 홍귀표 목사를 선출했다. 또한 임기 3년의 교단총무에 김성일 목사를 선출했다.

오세훈 목사는 "KAPC 45회 총회장으로 선택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총대원들께 감사한다.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총회를 섬기겠다"고 말하며 "지난 1년간 부총회장으로 어떻게 총회를 섬겨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첫째 계명으로 사랑에 대해 하신 말씀을 받고 그 적용에 대해 기도했다. 그

리고 '죽어 하나의 밀알이 되라'는 응답을 통해 총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이 되어 총회원들을 대접하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총회장은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총회를 위해 좋은 반찬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원선정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좋은 일꾼들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총회에서 진정한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했다.

이임하는 조문휘 목사는 "1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총회장 오세훈 목사, 부총회장 홍귀표 목사

서기 이준우 목사의 회원호명과 조문휘 총회장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첫날 회의는 박대원 목사 환영사, 서기 절차보고, 고시부장 고시부 보고로 이어졌다. 응시 9명 재시 4명 등 13명이 목사고시에 임해 1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명단은 이대현(nap.east북미노회), 원정필(중부노회), 김성은(뉴욕노회), 이승엽(뉴욕동노회), 전은호(뉴욕노회), 이기찬(중부노회), 박동민(nap.east북미노회), 이상익(뉴욕동노회), 백승준(필라노회), 박운(필라노회), 최진권(뉴욕동노회), 남명호(북가주노회) 등이다.

이어 임원선거가 실시됐다. 부총회장은 홍귀표 목사(68세, 시카고 다민족교회)와 한세영 목사(54세, 메시야장로교회) 2명이 출마해 투표를 앞두고 소견발표가 진행됐다. 총 229명이 투표했으며 홍귀표 목사 71%, 한세영 목사 29%를 얻어 홍귀표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신구임원 교체 후 신임 총회장 오세훈 목사는 직전 총회장



제45회 KAPC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신임 총회장 오세훈 목사(왼쪽)에게 총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조문휘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오세훈 목사가 총회장 취임 인사했다. 이어 전 총회장들의 당선 축하와 기대에 대한 영상이 상영됐다.

또 예정대신 총회장 이상재 목사와 예정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영상 축하인사가 있었다.

소 총회장은 먼저 척박한 땅에서 미나리같이 끈질긴 삶을 살아 오늘을 일궈낸 한인 이민 교회 목회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반기독교 세력과 악법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양 교단이 힘을 합쳐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총회장 조문휘 목사 인도로 기도 백운영 목사(필라노회), 성경봉독 고승경 목사(가주노회), 찬양 세계소망교회 4중창, 설교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 광고 서기 이준우 목사, 축도 송찬우 목사(서북미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는 줌 채팅장을 이용해 영어번역이 제공돼 이중언어로 진행됐다.

둘째 날 오전과 오후에 각부모임이 열렸고 오후 4시 오세훈 총회장의 사회로 회무를 처리했다. △은급부 보고는 이번 총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미국 교단내 한인교회들에 비해 미주에서 자생한 한인교단은 목

회자 은퇴프로그램이 없거나 부족하다. 직전총회(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KAPC 회원들의 큰 기대였던 은퇴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 총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조문휘 직전 총회장은 발언을 통해 "은급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총회 가입을 포기하는 케이스들을 보았다"라며 은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대해 설명했다. 은급부는 3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먼저 총회가 RBI(PC를 비롯한 네이팰교회의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가입을 결정한 RBI는 PCA 교단의 은퇴연금 투자회사다. PCA 목회자가 대표로 있으며, 12명의 스템이 일하고 있다. 현재 4,800여 교회가 가입해 있으며, 목회자가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고 소개됐다.

한편, 전 총회장 이용걸 목사는 "오래전에 이미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매년 한달치 사례를 담임목사 은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 다시 홍보하자"고 부탁했다. (3면으로 계속)



동성애로 분열된 교회지붕 떠나 새살림 차린다.

UMC, 신학노선 따라 교단 떠나는 지역교회 현황과 추이 소개

연합감리교회(UMC)의 분열이 여전히 가시권에 있는 가운데 탈퇴를 위해 출구로 향하는 미국 내 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Churches across theological spectrum exiting).

성소수자(LGBTQ) 허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적어도 5개 교회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 위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메인 주의 세 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교단을 떠나는 것에 압도적으로 표를 던졌다. 호프웨이(HopeGateWay)와 터틀로드(Tuttle Road) 그리고 체비그 아일랜드(Chebeague Island) 교회는 현재 뉴잉글랜드연회와 탈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 중 일부는 성소수자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교단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30년 넘게 체비그아일랜드 교회를 출석한 교인인 글로리아 브라운은 말했다.

약 300명의 교인을 가진 휴스턴

의 베링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는 4월 18일 95%의 지지로 성소수자들과 연대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이미 텍사스연회와 재정적 합의를 이룬 이 교회는 오는 6월 2일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 가입할 예정이다.

173년의 역사를 지닌 이 교회의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다이앤 맥게히 목사는 "베링교회는 감리교의 예배와 증거에 매진하며 교회의 역사 전반에 깊이 관여해온 유서 깊은 감리교회다. 교단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만 베링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전통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교회에서도 탈퇴를 위한 투표를 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3면
부른초장
정준성 목사



16면
인터뷰
이재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ook.org / cbc@jgbook.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불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1년 제32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의 제32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시어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제공합니다(Youtube:KAPCQ)

설교 : 오세훈 목사(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일시 : 2021년 6월7일(월) 오후 7시

장소 : 퀸즈장로교회(오프라인) / Youtube: KAPCQ(온라인)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 (718) 463-7163, (718) 886-4040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신학사:

김성은, 문맹숙, 이성남, 장수자, 최의화

장연숙, 최화순

김복순, 박경희, 윤경선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발행인 칼럼

1%의 기적



김성국 목사 (켄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주간에는 숨고를 시간이 없었다. 필자가 속한 교단의 화상 총회가 이를 동안 이어졌고 그 다음 날 목요일, 예정된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수영 때문이었다. 작년에 수술한 어깨가 너무 더디게 회복되어 수영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예전부터 가끔 다니던 수영장에 갔다가 심장의 통증을 느꼈다. 수영을 잘하는 솜씨는 아니지만 몇 차례 왕복하고도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수영코스 딱 한번만(one way) 지났을 뿐인데 심장이 아려왔다. 가만히 서서 심장을 풀어내리며 2-3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 그러려니 하고 몇 날 동안 수영을 다녔는데 계속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심장전문의를 찾아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스트레스 등의 검사를 몇 번에 걸쳐 받았고 의사는 동맥혈관에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시술 날짜를 잡았다.

“동맥혈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 검사 결과 끝에 들려준 의사의 말은 일반적인 것 같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스텐트 시술은 가볍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분위기 속에 한 시간여의 준비 시간을 걸쳐 마침내 수술실에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혈관이 99%가 막혀있고 1%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술을 마친 의사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의사 말대로 동맥혈관 99%가 막혀있었던 시술 전의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 그것은 심장과 연관된 세 동맥 중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는 설명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텐트를 넣어 혈관의 피가 힘 있게 흐르는 시술 후의 모습도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동안 서로 막혀있었던 피가 함께 만나 혈관 속에서 즐겁게 춤추는 모습 같았다. 문제가 있었던 두 혈관 중 다른 하나는 회복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혈관을 회복했기에 사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동맥 혈관 셋 중 하나로 살아온 셈이라고 의사는 놀라워했다.

나는 그날 집으로 갈 수 없었다. 회복실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고 병실에 계속 누워있어야 했다. 잠이 들지 않는 길고 긴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의사가 밤새 어려움이 없었는지 나의 상태를 살피러 왔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그동안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심각했습니다. 동맥 하나는 망가지고 중요한 하나는 1%만 남아 있었는데 벌써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멈췄을 것입니다. 제가 밤새 이런 환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목사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의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에 나만 잠을 못잔 것이 아니었다. 의사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의사가 그날 낮에 경험했던 기이한 일에 대한 목상을 하다가 그 1%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나의 심장이 이런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 하나님은 더디게 회복된 어깨를 가지고 수영장으로 가게 하셔서 심장의 연약을 발견하여 시술케 하셨다. 장로님들은 늘 부족한 목사의 시술을 앞두고 고리 금식을 하였고 교우들도 뜨겁게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1%의 기적은 늘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사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신 하나님께 1%는 사용하지기에 넉넉한 숫자이다.

“트럼프 또 대통령 됐으면...” 주류미디어의 ‘사모곡’

NYT/WP 구독증가세 급감, 시청자대거이탈로 ‘트럼프 재등장’ 바라는 이유 분석 소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날인 올해 1월 21일부터 백악관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종이신문 배달을 재개했다.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절독 조치 후 1년3개월여 만의 반전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 보도로 2018년, 2019년도

플리처상을 연이어 받은 두 매체를 포함한 미국 주류 미디어들은 올 들어 구독 증가세 급감과 시청자 대거 이탈 같은 뒷사리를 맞고 있다(Will News Media Suffer After the 'Trump Bump'? An Analysis).

이달 6일 공개된 NYT의 2021년 1분기 실적보고서를 보면, 올해 1-3월 신규 디지털 유료 가입자는 30만1000명에 그쳤다. 이는 작년 2분기(66만9000만명)나 4분기(62만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적다.

도다. NYT는 “2020년 한해에만 230만명의 디지털 유료구독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WP의 디지털 유료독자도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3배 증가해 작년말 300만명에 달했다. 2014년 약 280만명이던 3대 케이블 방송(CNN, FOX, MSNBC)의 프라

과를 자랑했다. 대통령 출마선언 직전부터 퇴임하는 순간까지 그는 뉴스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다.

특히 그의 집권 초기 행정 경험이 없는 신인들로 구성된 백악관 참모진은 정치 싸움과 내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절에는 4년 내내 넘쳐나던 백악관 내부의 누출기사가 바인든 정부 들어 끊어졌다. 백악관 내부 소식이나 정쟁관련 정보 자체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 여동안 ‘업무’에 주력하고 언론 노출은 자제하는(low-visibility) 접근을 취한 것도 주류 미디어에 대한 관심 저하를 부채질했다. 일례로, 트럼프와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후 각각 28일과 21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지만 바이든은 65일째인 올 3월 25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보다 앞선 15명의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 후 33일



바이든 취임후 유료구독자/시청자 절반 정도 떨어져 중간선거 등 트럼프 정치활동 재개시 반사이익 기대

6% 정도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고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유료구독자와 시청자, 온라인 방문자 증가 같은 호황을 주류 매체들이 누리는데, 이른바 ‘트럼프 효과(Trump bump)’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독자감소 등으로 몰락해가던 주류 전통 미디어들을 살려준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6년 말 232만명이던 NYT의 디지털 유료구독자는 작년말 669만명으로 4년 만에 440여만명 늘었다. 온라인 뉴스 유료화 시작(2011년 3월) 후 구독자 100만명 확보에 4년4개월 걸린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

임타임(prime time) 시청자 수는 트럼프 집권 3년째인 2019년 530만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를 가리켜 미국 정계와 미디어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미디어들의 비공식 ‘최고 마케팅 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라는 말이 회자됐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 주류 미디어들이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류 미디어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온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주류 매체의 인정과 주목을 받으려 가장 애쓴 인물이다.

재임 중 수시로 친 트럼프 언론인들과 직접 통화한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사 기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성

의도적인 누출(leak) 기사들이 난무했다. 여기에다 리버럴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안에 편승한 주류 미디어들의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반 트럼프 보도는 유례없는 디지털 구독자 증가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 ‘흥행대박’을 낳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반대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스타일이다. 백악관 참모진도 공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많고, 수년간 내부 팀워크를 다져 결속력이 단단하다. 그러다보니 가장 중요한 취재대상인 백악관에서부터 내부 갈등과 음모와 같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뉴스가 사라졌다.

피터 베이커(Peter Baker) NYT 백악관 담당 수석기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내 첫 기자회견을 연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넘게 늦은 것이다.

일각에선 주류 매체들이 예상보다 빨리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낙선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이달 중순 CBS방송이 공화당원 95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은 89%, ‘이민 정책과 언론대응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당원은 각각 88%와 77%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 대선의 합법적인 승자라고 응답한 당원은 33%에 그쳤다.

(9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1.25Acre 부지
General Commercial
80석 성전
프로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위내과, 위장내과, 소위내과, 대장내과, 소화기내과,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성명서

UMC(연합감리교회) 가주태평양연회 그랜트 하기가 감독은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담임목사 재 파송불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대로, UMC 가주태평양연회 하기가 감독이 3곳의 한인 교회(남가주 주님의 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들에게 목회자의 임기 종료로 의미하는 재 파송불가 명령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철회를 요청한다.

우선 이 결정은 한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내린 인종 차별적 결정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한다. 이는 한인 사회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요, 한인 교회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다음 이 조치는 감리교단내에서 일어난 성 정체성에 대한 신앙적 갈등에 대한 비 신앙적 처사로 그리스도안에서 형제 된 동료 목회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과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인교회의 정서를 무시하고, 미국 내에 존재하는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사명을 가로막는 부당한 조치다.

따라서 남가주 전체 한인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연합 단체들은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UMC 한인 교회와 목사님들의 입장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이미 발표한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협의회 결의문'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한인 교회들만을 타깃으로 삼아 구조적 인종 차별(discrimination)을 하는 증거로 보고 우리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에 내려진 차별적 명령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금번 재 파송불가라는 처벌적 조치는 동성애 이슈에 대한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인교회에 대한 불의한 핍박으로 보이는 바 이번 한인교회들에게 내려진 재 파송불가 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이번 하기가 감독의 한인교회에 대한 재 파송불가 조치는 연합 감리교회 교단이 준비하고 발표한 “은혜로운 화해와 결별 의정서”정신에 위배되며, 목회자와 소속교회의 의견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총회의 결정이나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한 감독의 월권임으로 즉각 철회하라.

넷째, 하기가 감독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미국 한인교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며,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목사), 청교도신앙 회복 운동본부(회장 한기홍목사), JAMA(전 대표 강순영목사), KACC(창립준비위원장 샘신목사),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회장 한기홍목사)

May 17, 2021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

그리고 매년 총회 예산의 10%를 임금비로 책정해 RBI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으로 준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 취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각 지역에서 년 총회비를 특정지역 목회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리고 매년 총회 결산 후 남은 재정 일부를 선교사들을 위한 임금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1년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임사부 보고에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북가주노회가 현의한 노회와 총회의 장로 부총회장 제도를 두자는 현의안은 받지 않고 이전대로 하자고 처리했으며, 총회석상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임원회가 현의한 역사편찬위원회 조직은 50년사 발행에 한해 받기로 했으며, 북가주노회가 현의한 총회 임금부담 상임위원회로 대체하자는 안은 1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공천위원회가 현의한 상임위원회 6년 연한 제한은 조건을 붙여 종전대로 하기로 했으며, 임원회가 청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회기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자는 안은 이전대로 하기로 했다.

△고시부는 내년 5월 16-17일에 총회 장소에서 열

리는 목사고시 일정을 발표했다. 고시부는 올해 목사고시 지원이 다른 교단에 비해 적었다며,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총회장과 임원들이 신학교를 방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학생들에게 교단을 홍보해 졸업 후 목사고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규칙부는 지난 총회에서 일임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에서 영문 사도신경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를 1년 더 하기로 했다.

△청소년지도부는 팬데믹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다음세대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기독교세계관, 성경체성, 창조론, 정신건강 등을 1년간 연구하고 같은 주제로 청소년 특강을 한다.



는 지난 회기 신학부 발표를 참고하기로 했으며, 서북미노회가 질의한 은퇴목사, 부목사, 무임목사가 노회 상비부에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준해 노회의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신학부는 연구모임을 오는 10월 18-20일에 뉴햄프셔장로교회에서 열며, 연구주제는 사도신경과 미셔널처치 그리고 두날개와 알파코스와 고 알렸다. 그리고 지난 총회

△총회장 오세훈 목사(로스앤젤레스, 세계소망교회) △부총회장 홍규표 목사(중부, 시카고 다민족교회) △서기 장성철 목사(뉴잉글랜드, 보스턴장로교회) △부서기 이재덕 목사(뉴욕남, 뉴욕사랑의교회) △회록서기 이영진 목사(동남부, 댈러스제일장로교회) △부회록서기 문석호 목사(가미, 밴쿠버시온성교회) △회계 김영석 장로(북가주, 상향중앙장로교회), △부회계: 김원도 장로(뉴욕, 퀸즈장로교회) △총무: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 빅토빌에수마음교회).

△내지선교부는 5개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미자립교회를 위한 1대1 멘토 지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한 교회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연례사업인 목사장로기도회를 미국 3개 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하기로 했으며 교육부위원들을 실행위원으로 각 노회장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상임교육연구위원회는 올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요리)문답”을 번역해 출판했으며, 다음 사업으로 스페니쉬판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재를 개발 출판하고, 개정 및 증거성구 확인 작업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총대들이 참가했다. 목사총대 316명과 장로총대 33명 등 총 349명이다. 새로 선출된 45회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오세훈 목사(로스앤젤레스, 세계소망교회) △부총회장 홍규표 목사(중부, 시카고 다민족교회) △서기 장성철 목사(뉴잉글랜드, 보스턴장로교회) △부서기 이재덕 목사(뉴욕남, 뉴욕사랑의교회) △회록서기 이영진 목사(동남부, 댈러스제일장로교회) △부회록서기 문석호 목사(가미, 밴쿠버시온성교회) △회계 김영석 장로(북가주, 상향중앙장로교회), △부회계: 김원도 장로(뉴욕, 퀸즈장로교회) △총무: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 빅토빌에수마음교회). <박준호 기자>

시론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건 1주년을 맞이하며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미국 전역을 아픔과 분노로 타오르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오후 8시에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9분 이상 눌렀고, 곁에 있었던 3명의 경찰은 지켜만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플로이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고귀한 인간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폭력 앞에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엄마를 부르는 사람을 죽임으로 몰아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한 인격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상황은 세월이 지나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합니다.

미국 전역에 “Black Lives Matte,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인권운동의 불씨가 일어났고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 어그러진 정의 앞에 순수한 정신으로 항의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 폭력과 약탈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낮과 다른 밤의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인간성이 어떤 것인지 또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았으니 미국 전역에 많은 아시아인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사회와 세상에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상은 사회 정치적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는 개인과 인종, 사회와 국가 간의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부여된 성품과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서 있되 속하지 않고 세상을 소중히 여기되 종속되거나 완전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은 세상을 벗어나 홀로 외딴섬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바울 시대도 억압받았던 여성들과 인권이라고 전혀 없었던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도의 개혁도 질질했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근본적인 변화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각 사람마다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발휘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인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과 인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당하는 고통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도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는 가장 연약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고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의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antidote!(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대가 사랑과 공의 위에 세워지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고결한 인격체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원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한 알의 밀로 썩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preachchrist@kcpc.org

동성애로 분열된 ...

(1면에서 계속)

일리노이 주 페어뷰하이츠에 소재한 그리스도교회는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스연합회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 교회와 연합 지도자들은 4월 22일에 교단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 회의를 열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웨인 비숍 목사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목사안수를 반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인 웨슬리안연합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지도자였다. 비숍 목사는 현재 교회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

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이미 독립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러한 교단 탈퇴는 지난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정결을 이룬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 내의 케케묵은 수십 년간의 논쟁에 따른 것이다. 범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의

강화시켜,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그러나 비교적 표차가 적었던 투표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연합감리교회는 현재 신학적 노선에 따라 분리하자는 다양한 제안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분리에 관한 어떤 안건도 총회의 승인 없이 발표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은 총회를 두 번이나 연기시켰으며, 총회는 현재 2022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총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다. 연합감리교 뉴스가 검토한 미국 내 연회 보고서와 저널에 따르면 2020년에 총 54개의 연

2019년총회 동성결혼 주례불가(찬438/반384) 통과로 갈등시작 2020년 51교회 탈퇴승인... UMC중 소수지만 2022년 총회 주목

입법기구인 총회는 438대 384로 성직자의 동성결혼 주례를 고소가 가능한 혐의로 처벌을

수집하는 교단의 총회 재무행정협의회는 올해 말 그 공식 직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단의 연금기관인 웨스패스(Wespath Benefits and Investments)도 목회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단의 탈퇴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데이터를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그동안 본 교회를 섬겨 오시던 담임 목사가 2021년 6월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임하시기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2편(설교시간: 25-30분), 자기 소개서, 목회소망/ 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성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북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로마의 산책-안전함

내가 사는 로마의 아파트는 항상 편안함을 갖게 한다. 일층인데(우리로선 2층) 창문마다 밖으로 두꺼운 철재로 안전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안으로 열수 있는 창문과 더불어 이중으로 된 철제 창문이 버티고 있어, 혹 창문을 닫지 않아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처럼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삶의 평안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다. 하물며 국가의 안전은 모든 국민들에게 절대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정 로마시대에 수많은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로마의 그늘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래서 황제와 원로원에서는 천천히 들어오도록 제재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로는 최고의 힘을 구사했던 로마의 그늘로 들어가면 로마의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 나라의 침략에서 자유하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된다. 물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침략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패한 쪽은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현대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힘이란 본능적으로 개인이든 국가든 언제나 그 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은 성서적으로 보면 부패한 속성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욕망을 존재의 본능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증진시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 인간은 보다는 삶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개인이나 국가는 힘이 없을 때 무시당한다. 북한에서 탈출한 외교관의 말에 의

하면 국제 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두 자신을 피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혹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야말로 힘없는 자의 비애가 아닐 수 없다.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교회도 비슷하다. 대교회의 담임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작은 교회의 담임은 찾는 이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는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 사실 특징이나 국가에게 강한 힘을 지니게 하는 것은 약한 자 및 국가를 도우라는 섭리가 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들에게 욕망대로 행동하기에 세상은 요란하게 된다. 개인이나 국가가 일정한 힘을 가졌다고 판단할 때 슬슬 옆 나라에게 시동을 건다. 그건 사실 한번 불어보자는 신호임을 개인이나 국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모

든 나라는 가장 강한 무기를 소유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 힘의 가장 하이라이프가 핵이라고 여긴다. 핵은 한방으로 엄청난 괴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은 최후 마지막 순간, 너 죽고 나죽자고 달려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몇 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는다. 온갖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말이다. 내 생각이지만, 만약 우크라이나에게 당시 핵이 있었다면 어쩔을까? 함부로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본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대항하기 위해 설치한 엄청난 전술핵들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에 모두 가져가도록 했다고 한다. 만일 그 때 우리 땅에 설치된 핵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은 적은 인구와 작

은 땅을 지니고 그래도 5억의 인구를 가진 중동국가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가공할 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 두 개가 아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국가들을 향해 당당할 수 있게 한다.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약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었다. 강한 나라에 빌붙어 살아가는 수밖에. 그래야 백성들은 밭을 뺏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실학이후 지구촌 약소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법칙이다. 힘없는 개인이나 국가가 공의를 외칠 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나 국가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정준성 목사
(뉴욕 주사장장로교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난을 없애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계속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면케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게 때문입니다.(마 5:10-12). 세상 사람은 '돈'과 '복'을 연결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고난'과 '복'을 연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후 65년 네로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는 날로 더 심해져 주후 90년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의 흉상 앞에 향불을 피우며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황제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종신형을 선고받고 밧모섬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목사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제국의 공권력은 황제숭배를 안 할 수 없도록 조여 오고 있습니다. 황제숭배를 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황제숭배를 거부하면 당장 잡혀 들어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1900년 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느냐?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가 죽었습니다. 나도 언제 잡혀 들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계1:1).

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때 천을 걷어서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미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 중간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계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패색이 짙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을 걷어내시며 '미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

시의 고난을 이기십시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the Great Unseen Reality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나 강력해 보였지만, 황제의 말 한 마디에 성도의 목이 잘려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리고 있던 천을 걷어주시니, 진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천년만년 통치할 것 같았지만, 그는 불과 6년 후에 죽습니다. 그는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시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승리를 보고 고난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계1:3)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며 동시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주신 가장 중요한 '예언'은 다음과 같

습니다. '최후승리는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최후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격이 급합니다. 고난을 당하며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고난을 멈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9-11절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세상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뭐라고 답하셨지요? 너희 형제들과 친구들도 순교의 피를 흘릴 때까지 기다려라! 더 많은 성도가 피 흘려 순교할 때까지, 박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 답하셨습니다.

황제 대신 '돈'과 '성공'이 아닐까요? 신앙 양심을 한 번만 버리면, 큰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 양심을 한 번만 버리면,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돈을 벌 기회를 놓친다 해도, 성공할 기회를 놓친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안 나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믿음을 내려놓는 연약한 믿음을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을 쉽게 버리는 양심은 아니지요? 교회생활 하시다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쉽게 떠나지는 않으시는지요? 직장생활 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또박 또박 읽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는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읽었을까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3절은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한글성경에는 '오시리라' 미래형으로 되어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형입니다. 영어성경 ESV는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Behold, he is coming).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쓴 성 안토니의 전기를 읽다가 귀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처럼 하루를 살자. 저녁에 해가 지면, 저 해가 다시 뜨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처럼 저녁을 살자.'

복

요한계시록 1장 1-3절

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신앙을 내려놓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예수님 믿고 살기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이 약한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하고 있나요?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더욱 힘을 쏟으십시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지금 밧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두루마리에 다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일곱 교회에 보냅니다. 지금은 수백 장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드리면 되지만, 그때는 복사가기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약 15%의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복 받은 줄 알고 기뻐하십시오. 미래의 승리와 진짜 현실을 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십시오. 신실한 사람, 말씀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john.junsoong.jung@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비판적 인종이론’ 이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은?(1) CRT는 사회를 악화시키고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를 낳을 뿐이다!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은 한때 주로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학문”으로만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로 반기독교성향의 좌파라고 알려진 딥스테이트(Deep Blue State)나 대도시(major cities)들 안에 CRT 어젠다가 공립학교 K-12 커리큘럼과 정부기관과 미국 기업에서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종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 계층들이 경고하는 CRT의 문제점들을 들어본다:

지난 5월 6일 미국의 청교도 가치관을 옹호하는 단체 ‘Latinos for Tennessee’가 후원하는 행사에 초청된 연설자들은 ‘비판적 인종이론(CRT)’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그중 침례교 목사이자 FreedomWorks의 선임연구원인 C.L. 브라이언트는 젊은 시절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지지해왔지만 그 배경과 실체를 알고 난 이후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원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의도한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이론”은 1950년대 흑인 해방신학(black liberation theology) 과 함께 형성된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며, 지금 나온 CRT의 지지자들이 내미는 듣기좋은 “Equal평등, Justice정의”란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

등, 정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매우 큰 착각이라며, 저들은 우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
브라이언트 목사는 “CRT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의(justice)를 과거의 흑인시 민권리 옹호운동(Civil Rights Act)자들과 비교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정작 시민 권리 옹호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Douglas Fredrick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그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의 더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인종 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느냐” 라면서, “뜻을 바꾸면 목적이 달라진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가족, 성별, 결혼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인권운동들은 역사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사회의 건강한 핵심 가치들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CRT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제도적인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을 경험했지만, 그런 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주며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일이 과연 벌어지는가?(Is there anything you can NOT do in America today where the color of your skin would stop you from doing it?)”

3. 공산주의 사상을 감추고 “Social Justice” 라는 양의 털을 쓴 CRT
Robby Starbuck이라는 감독이 프로듀서인 ‘비판적 인종이론’이 어떻게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힘을 실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분리(racial division)와 완전 판박이인지에 대해

여 언급하며 다음처럼 경고합니다.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지금 미국의 좌파정치인들과 주류미디어(CNN, NBC, ABC 외 주류 언론들)들이 한 쪽으로 치우친 ‘평등, 정의’라는 미명아래 인종분리(racial division)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비판적 인종이론’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스타벅은 마르크스 사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언어의 변화를 한 예로 들며, “지금 좌파 학계에서는 그동안은 “Latino”와 “Latina”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 중립적인 의미를 갖은 Latinx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Latinx”라는 단어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히스패닉들은 그런 단어로 불리는 것을 불쾌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은 또한 ‘CRT’ 개념이나 생각이 대중적 인기가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조작한다”고 말하고 “세뇌는 좌익세력 신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자녀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이들은 세뇌가 아닌 ‘정치 중립적 교육’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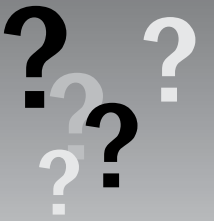
“모든 이론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



Rev. C.L. 브라이언트 목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15세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목회하다가 내 자신의 목회 경험 부족 때문인지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어느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에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2년 전에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로 목회 의욕상실과 패배의식으로 인해 탄 길로 가려다가 기도하며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의 길을 가려는데 지난날의 상처회복에 대해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LA 근교 Sam 목사

A: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목사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먼저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을 목회하기에 목회하면서 상처입지 않을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는 3가지로 줍니다.

첫째로 본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야구 선수가 배터 박스에서 공을 치려하다가 간혹 피치의 볼에 몸이 맞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고통을 주지만 야구하다보면 타자가 어찌다가 볼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속히 떨쳐 버려야 합니다. 공을 던진 자를 미워하고 계속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사역하다가 입은 상처는 힘들지만 용서하고 속히 잊어버리기 잘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에 빠지면 목회가 불가능해집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사탄은 주의 종 공격 사역방해...하나님께서 새 길 열어주시길 기도

둘째, 상처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으며 나는 상처 입었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기쁨과 평강은 사라집니다. 셋째,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파괴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의 가장 심각한 현실적 문제는 관계의 장애입니다. 그 상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에게 분노와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분노나 이해 못할 공격적인 행동을 봅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지난날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게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상처를 교묘히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남겨두면 부패하고 썩게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리가 몰리게 되고 쥐가 찾아옵니다. 상처 입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잊어버리거나 용서하거나 회개함으로 영적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라고 다 우리의 감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간혹 우리의 감정으로 교묘히 조작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은 주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어주고 패배의식을 심어 주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한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흥해바다의 감추인 길을 여신 하나님이 목사님께 새로운 목회의 힘과 사역의 새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목사 청빙

Seeking Education Director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1. 자격요건

- a.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b.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2. 섬기는 사역

- a. 교육부서 전담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3. 지원서류

- a. 이력서
- b.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 c. 자기 소개서
- d. 신앙 간증
- e. 추천서 2부

4. 서류제출

- a.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b. 보내주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s:

- a.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c.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Position:

- a. Education pastor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Requirements:

- a. Current resume
- b.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 c.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 d. Personal testimony of faith
- e.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담임목사: 조응철, 소속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회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사람을 세우는 사역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현지 지도자의 자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와서 돈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제자들을 눈여겨보았고 또한 기도의 사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외부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긴 안목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때 미래에 난관

을 이겨낼 가능성을 가진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알고 헌신의 참된 의미를 알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를 눈여겨보았고 그런 사람을 함께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비전을 나누고 궁극적으로 사역을 같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같이 하던 사역을 넘겨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때론 현지교회 사정도 모른 채 돈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가 현지 교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돈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짓고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시급성(?) 때문에 오히려 선교사역을 후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세운 사역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나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재정이 끊어지거나 협력하던 선교사가 떠나 버리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기 보다는 외부의 재정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 돈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또 돈이 끊어지면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건히 세워진 현지 교회는 외부 세력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기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내게 되며 영적으로도 강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중에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건물을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려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외부적인 평가 점수가 박합니다. 가시적인 건물

과 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더 많은 재정을 모금하기에 수월하기에 여기에 매달리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나 학교는 현지인에게는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돈 끌어와서 지어낸 선교사의 재산입니다.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교회 세우면 그것을 아는 현지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며 현지 목사와 선교사가 월급을 주어야만 일을 하고 선교사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여 선교사와 연관이 끊어지면 더 이상 관리를 못하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현지인들이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씩 헌신하고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운다면 건강한 교회로 지속되어 더 많은 복음 확장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코비드19로 인하여 선교지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의 멘토로서 한 달에 한 번 콜로 줌으로 연결하여 얘기를 듣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결된 선교사들은 모두 건물 짓는 사역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영혼들을 깨울까, 사람을 세울까, 제자를 양육할까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사람 키우는 일에 모든 시간과 삶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우리에게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베스트락교회, 종교자유소송 승소

미국 하베스트락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한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예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는 주정부가 하베스트락교회에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그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not enforceable)'이 명백하면, 주정부가 권고, 모범 사례, 주의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교회 대변인인 매트 스타버(Mat Staver) 리버티 카운슬 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뉴선(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이제 영구적으로 격리됐으며, 교회와 예배당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체 안(Ché Ahn) 목사와 하베스트락교회, 하베스트국제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안 목사의 리더십과 용기가 회포를 무너뜨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해방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하베스트락교회와 하베스트국제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모임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는 작년 10월 찬성 2표 반대 1표로 제한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예배당에 대한 제한 명령이 교실이나 영화관 등 다른 실내 집회 행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일부 대중 활동은 모든 카운티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로마가톨릭 브루클린교구와 유대교 회당 두 곳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종교 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계속되자,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4월 예배당에 대한 수용인원 지침을 "의무사항(mandatory)"에서 "강력한 권고사항(strongly recommended)"으로 하향시켰다.

그레이엄 목사, "늦기 전에 백신 맞으라"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목회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8일 HBO의 약시오스(Axios)와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멀리 두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빌리 그레이엄전도 협회와 국제구호기구인 사마리탄 퍼스 대표이기도 한 그레이엄 목사는 부친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는 의학을 강하게 신뢰했다. 아버지 역시 백신을 맞으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미국 백신 복음주의자들 상당수가 백신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45%의 백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수치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자신의 백신 접종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백신을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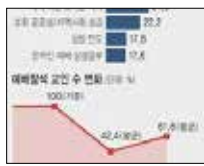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한국교회와 알고 있는 개혁적이며 온건한 복음주의 그룹과는 양상이 다르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와 공화당을,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그룹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엔 국가주의와 음모론까지 수용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우파 기독교로 기울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코로나19를 종말의 현상으로 해석해, 적 그리스도나 비밀조직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레이엄 목사는 부친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생전에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과 달리, 그의 우파적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낙태나 동성애 등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왔으며, 종말론이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논선을 견지하고 있다.

그레이엄 목사는 목회자들을 향해 "교회 성도들과 백신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며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이탈 가능성 큰..."

코로나19 이후 대면 예배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노인'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 꼽혔다. 기독교 저술가이자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인 톰 라이너(사진) 박사는 교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라이너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나 전화 등을 통해 목회자 60명 이상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이탈을 우려하는 신도로 노인 집단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집단을 일관적으로 꼽았다. 라이너 박사는 "목회자들의 고민이 겹치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중에서도 70세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세대는 코로나 위험이 가장 취약한 그룹 중 하나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해 교회에 돌아오길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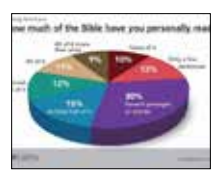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선 "자녀가 학교로 돌아간 경우엔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회에 데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자녀가 학령기보다 어리면 (학교도 안 가는데) 교회학교

에 돌아오길 주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그럴 경우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족 집단은 노인 신도보다 수가 적지만 교인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이너 박사는 이들 집단을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선 교회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됐고 교회에 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느끼게 됐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온라인 성경공부를 시작하거나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등 간단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사용자 통계로 미국읽기

바나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2021년 미국 성인의 성경사용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5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첫째,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54%)이 성경 읽는 미국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작년보다 5% 증가한 것이며, 33%는 성경과 상관없이 미국이 똑같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작년보다 5%가 줄었다. 미국인 14%는 성경 읽어도 국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데 지난해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친성경적인 시각이 증가했다.

둘째, 성경사용자가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성경사용자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2021년에는 50%가 적어도 가끔씩 성경을 읽는다. 최고는 2014년 53%, 최저는 2019년 48%였다. 여기서 '성경사용자'란 교회의 예배나 행사 외에 1년에 적어도 서너 번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국인은 2019년 35%에서 2020년 여름 31%로 떨어졌다. 2021년은 29%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셋째, 미국인의 71%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55%가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적으로 미국인의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비율은 낮다. 13%는 성경이 이야기와 조언이 담긴 또 다른 책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9%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며, 10%는 성경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믿는다.

넷째, 미국인의 54%는 성경의 메시지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성경이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매우 동의는 30%이며, 어느 정도 동의는 24%, 반면 어느 정도 반대는 12%, 매우 반대는 13%다. 지난해에는 미국 성인의 68%가 성경을 중요한 지혜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다섯째, 미국 성인의 3분의1 이상(34%)이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반면, 절반(50%)은 1년에 두 번 미만 성경을 읽는다. 이 두 집단 사이의 16%는 성경을 1년에 두 번 이상 읽지만 매주 읽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미국 성인 6명 중 1명(16%)은 주중 거의 매일 성경을 읽으며 이는 2020년의 12%에서 증가했다. 성경을 읽는 회수는 매일 11%, 주 4번 이상 5%, 주 2-3회 9%, 주 1번 9%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들은 성경책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성경으로 급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에는 81%가 성경책을 선호했다. 하지만 2019년 72%, 2020년 65%, 2021년 5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곧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세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쇄된 성경책은 대부분의 노인(84%), 베이비붐 세대(72%), X세대(56%)가 선호한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47%)와 Z세대(44%) 사이에서는 반이하로 떨어진다.

성경사용자의 21%가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고 했으며, 평화(19%), 격려(17%), 희망(16%)을 느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12%가 높은 지식, 31%는 중간 지식, 31%는 작은 지식, 26%는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

"백신 맞으면 복권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복권 등 경품을 나눠주는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후 일부 지역 접종률이 30% 이상 뛰어오르자 현지 보건당국은 유인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더힐,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급등한 곳은 미국 오하이오주다. 16세 이상 주민 중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지난 13-19일 11만9394명이다. 이는 전주(6-12일) 기록한 8만9464명보다 33.5%나 증가한 수치다. 접종률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시점은 접종자에게 복권을 나눠주겠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다.

당시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백신 1회 이상 접종자에게 추첨을 통해 당첨금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복권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추첨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한 번씩 총 5번 진행된다. 5주에 걸쳐 총 500만달러가 당첨금으로 내걸리는 것이다.

주 당국은 이번 유인책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부르고 있다며 지금까지 10여개 주가 복권과 관련한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오하이오주 전체 접종률로 따져본다면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도 지난 20일 복권 지급을 발표했다. 각각 최고 당첨금 500만달러와 40만달러를 걸었다. 오리건주도 백신 접종 시 100만달러짜리 복권을 차지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11일 만에 휴전 이·팔, 서로 "승리" 자축

열하루 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휴전으로 일단락된 후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는 모두 승리를 자축하고 나섰다.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지만 국내 정치적 이익을 쟁긴 양측 지도부는 오히려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다.



휴전 합의 직후 양측은 모두 각자의 승리를 주장했다. AP통신은 22일 가자시구의 중심도시 가자시에서 하마스 지도자 예히야 신와르가 무력 충돌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고 수백명의 전투원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등 승리를 자축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끔찍한 패배"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번 전쟁에서 '특출한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얻은 이익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한다"면서 "우리는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들은 모두 이번 무력 충돌을 통해 각자의 국내 정치에서 막대한 정치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22. 염달옥(1876-1933)

염달옥은 1876년 9월 15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세에 고애나와 결혼하여 아들 율리와 딸 루스를 두었는데, 혼자서 미국 유학차 호놀룰루(호항)를 거쳐 27세인 1904년 11월 25일에 상항에 도착했고, 이후 그는 왈터(Walter)로 통했다.

나성한인감리교회 설교자

1898년 2월에 프로렌스 셔먼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해리 C. 셔먼 박사와 함께 내한했다. 셔먼 박사는 광혜원에서 의료사역을 담당하다가 과로로 병을 얻어 1900년 도미하였으나 그해 7월 25일에 향년 31세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천하였다. 이후 셔먼 선교사는 두 자녀를 기르며 나성에 거주하던 한인선교에 투신하면서 자신이 출석하던 나성 제일감리교회와 나성 인근 포모나제일감리교회의 '젊은부인해외선교부' 등 백인교회로부터 기도 후원과 재정적 후원을 도모했다. 마침내 미국 남감리교 남가주연회는 셔먼 여선교사를 한인선교 책임자로 세웠다. 셔먼 선교사는 1904년 3월에 '사우스 힐 스트리트 1519번지'의 건물을 임대하고 한인기숙사와 한인 예배처소를 마련한 후 나성거주 한인들에게 기독교 가르침을 만들고 한인이주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며 한인 유학생들에게 학업을 돕는다는 등의 목적을 세웠다. 곧이어 신흥우는 평신도 한인목사로 임명되었다. 신흥우는 25세가 되던 1903년 도미하여 이듬해 셔먼 여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가주대학교 별과 학생으로 2년 과정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아 셔먼 여선교사와 교분이 있었던 모양이다. 본 예배처소는 북미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된다. 오늘날의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는 셔먼 여선교사의 한인교회가 세워진 1904년을 창립된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한인들은 주일 아침에는 나성제일감리교회 영어예배에 참석하고 곧이어 셔먼 선교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주일후 한인예배처소

에서 한국어 주일예배가 있었다. 한국어 주일 예배에 신흥우가 설교했고, 셔먼 선교사가 설교하면 신흥우가 통역했다. 그런데 설교자로 신흥우뿐만 아니라 염달옥 외에도 홍승한, 김인



사우스 힐 스트리트 한인 예배처소 건물, 셔먼 선교사가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다

제, 남궁염 등 한인 유학생이 활동했다.

셔먼 여선교사는 주일예배와 주일학교 외에도 토요일 엡잇 청년회와 금요일 성경공부반을 운영하였다. 서

나성한인감리교회 설교자 전도사로 짧게 사역후 상항이주 나성으로 재이주 집사 재직, 신흥국어학교 교장으로 섬겨

면 여선교사에게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전도한 자들도 있었다. 한인 노동자들도 몇몇 있었지만, 교인들은 거의 유학생이었는데 모두 미국인 나성제일감리교회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매일학교를 개설하여 셔먼 여선교사가 교장이 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한인들을 가르쳤다. 이 매일학교는 여름방학 때 정규 학교제도를 가동하였는데, 남가주대학교, 중고등학교(Academies)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던 유학생이 이 매일학교에서 공부하면 한, 두 학년을 월반할 수 있었다. 본 매일학교가 학교 내에 '고용부'를 두어 학교제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교회의 삼자운동을 연상케 한다.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노동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했고 기숙사비도 납부할 수 있었다. 기숙사생은 한인미자가 나성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자취하였다. 셔먼 선교사 가정과 함께 임대한

건물에 여러 한인이 거주하였는데 염달옥도 있었을 것이다.

신흥우가 1906년 1월에 평신도 목사직을 사임하고 김우제가 그 뒤를 얼마간이었던 것 같고, 곧바로 신흥우가 다시 교회를 섬겼다. 이런 가운데서도 염달옥의 설교자직은 변함없었다.

1907년 남가주연회는 한인 예배처소가 부흥한다고 보고하였다. 그해 대구에서 서상돈과 김광제가 국제보상취지서를 내고 2000만 동포가 매식담배값 20전을 모아 2,000여 원을 모금하였음을 보고 염달옥이 박형모, 남궁염, 신봉희와 함께 애국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국제금 1300만 원을 갚자고 1907년 4월 26일 자의 신한민보에 호소했다고 하니 그의 나라 사랑을 엿보게 된다.

나성 한인사역은 '일본사역'하에 있었으나 '나성도시선교회'의 별도 사역으로 구별되었다. 1908년에는 '나성도시선교회' 외에 남가주대학교 이사 A.W. 애드킨슨 박사와 남가주연회 감독이 협력하였다. 당시 재적수는 17명이었다. 한 달 건물 대여비가 18달러였고, 셔먼 여선교사의 한 달 사례비가 25달러였던 반면에 신흥우의 한 달 사례비는 20달러였다. 이로써 한인사역에 필요했던 예산은 한 달에 60달러였고, 1년에 756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남감리교의 '내지선교부'와 '교회연장부' 등 두 기관이 285달러를 보조했고, 그 외는 '나성도시선교회'가 후원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 해 나성의 헌트 부인은 비록 가난했지만 '주머니'를 손수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한인전

스 애비뉴 1540번지'에서 13세 된 아들 율리와 살았다. 그해 3월에 나성에 농산물경영회사인 권업 동맹단이 조직될 때 단장 오 운과 함께 염달옥은 서기였다. 1914년 7월에는 3만 달러의 자본금을 모았으나 권업 동맹단은 실패했다.

신흥우는 문학사를 받은 이듬해인 1911년 4월에 귀국했다. 민찬호 전도사의 나성 이주가 1911년 3월인데 그의 부임은 아무리 빨라도 그해 4월이다. 염달옥의 설교자직은 나성에 도착한 때가 1904년 12월이면 1911년 3월까지 6년 6개월로 보이고, 그의 이름이 국제보상취지서와 관련하여 처음 공립신보에 나타날 때인 1907년 4월부터라면 4년간이다.

그런데 설교자였던 염달옥이 전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로벗슨 한인연합감리교회 팔십년사'는 "그 당시 설교자로 수고하던 분들이 바로 신흥우 선생, 김인제 전도사였고, 그들이 귀국한 후에 염달옥 전도사가 수고했다. 그 후 1911년 3월 3일 민찬호 목사가 하와이에서 공부차 나성으로 오게 되었고 나성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잠시 교회를 맡았었다"고 기록한다. 그렇다면 염달옥의 전도사직은 신흥우가 귀국하던 1911년 3월부터 민찬호 전도사가 부임하던 1911년 4월까지로 1달이다. 그런데 민찬호가 1912년에 나성한인장로교회로 전임하면서 나성한인감리교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상항한인감리교회

도를 위하여 헌금하여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해 12월에 상항한인감리교회가 발간한 대도보에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미미교회(나성한인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한인교회라 비록 교우는 만지 못하나 범사에 재미있게 지낸다더라'고 보도했다.

1909년 1월 16일 주일 밤 교회 재정조사라는 이유로 구타하고 옷을 찢는 등 예배당에서 난투가 일어났다. 그해 봄 미국 남감리교 남가주연회는 재정부족으로 한인사역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인 교인들이 의연금을 모아 신흥우 등이 계속 사역하게 되었다.

나성 한인사역이 1909년에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로 이임되어 연회 감독인 존 W. 와드만 목사는 한인사역을 위하여 300달러의 예산을 청구하였다. 이듬해 예배처소가 '매그놀리아 애비뉴 1620번지'로 이전했다. 그해 염달옥은 자동차 부속품 상점에서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나성 '메이네

1911년 6월 28일 밤에 염달옥이 나성 동포를 나성한인감리교회 예배당으로 초청하여 '나성 동포의 친목회를 열고 슬픈 회포를 위로하며 친애하는 정을 더욱이 도담게 하였는데' 그가 상항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진 나성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다.

1915년 추수감사절은 그해 11월 25일에 있었다. 그날 저녁 8시 30분에 옥 스트리트에 있던 한인 예배당에서 각 교인이 과일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염달옥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순사에서 본 교회 중직자의 이름과 맡은 순서를 발견할 수 있다. 강천명의 기도애 이어 찬미, 염달옥의 감사의 뜻, 이대위 목사의 성경봉독, 조기호의 설교, 고이원 여학생의 찬미, 부인 하명원의 물질적 감사에 대한 연설, 부인 임애성의 신령적 감사에 관한 연설, 이성식의 찬가, 강요사의 연설, 김승현의 음악, 이대위 목사의 폐회축사로 이어졌고 다과회가 있었다. 이듬해 11월에는 상항 청년회가 원산 학생을 후원하

는 기부 행사가 있었는데 염달옥은 1달러를 냈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집사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장 도산 안창호가 멕시코 여행을 떠나기 직전인 1917년 9월 26일 저녁 8시 30분에 나성 지방회 회관에서 전별회가 있었는데 염달옥이 마지막 순서인 재담을 맡았으므로 그가 1917년 9월 이전에 나성으로 이주한 것이 분명하다.

민찬호 전도사를 이어 임시 전도사로 홍치범이 나성한인장로교회를 섬겼고, 염달옥은 집사로 선정되었다. 1919년 9월 25일 자의 신한민보는 나성한인장로교회의 부흥을 희망하면서 재류 동포가 100여 명인데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장년 교우가 40여 명에 이르고 예배당은 이전보다 일층 더 편리하게 설비되었음을 보도하면서 교회직원으로서 순행전도사 홍치범 외에 영수에 노진국, 박일우, 염세우, 집사에 정인영, 정지영, 염달옥, 조성환, 주영한, 전 진 그리고 권철원에 김이선, 박순애, 임화연을 소개했다. 1920년 3월 1일 제1회 독립선언기념회가 있었는데 제1부는 홍치범 전도사의 개회로 시작하여 염세우의 임시 정부 헌법 낭독 후에 염달옥이 축사를 낭독했다.

나성에서 요리사로 활동하던 염달옥은 1921년 4월 26일에 호항으로 이주했고, 그달에 하와이 한인교단 서기 겸 재무에 선임되었다. 그는 호항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1923년 7월에 교회 부속 신흥국어학교가 설립되면서 그달에 하와이 감리교 한인부가 한국어 교과서편찬위원회를 조직할 때 헌 순 등과 함께 염달옥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달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각 교회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할 때 염달옥이 서기에 선임되었다. 릴리하 국어학교 목공이었던 염달옥이 해 10월에 그의 딸 루스와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염달옥은 1925년에 신흥국어학교 교장이 되었다. 교사 2명에 5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는데, 오아후섬에 6개의 한글학교 중 신흥국어학교가 가장 컸다. 황사영, 현 순, 흥환식에 이어 드루 신학교에서 공부한 변흥규가 호항 한인감리교 목사로 부임했으나 2년 만에 만주선교를 위해 떠나고 임두화가 부임하던 1930년에 염달옥은 세탁소를 경영했다.

1933년 6월 13일에 염달옥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우연히 길가에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향년 57세에 소천하여 호항 누아누 기념공원묘지에 안장됐다. 몇 주 전에 결혼한 딸은 부친상을 당하여 신혼의 기쁨을 망각하였다고 한다.

damien.sohn@gmail.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동부(NY, NJ)교회</h2>		<p>뉴욕셋세마네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세백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세백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2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세백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백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백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백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시</p> <p>www.p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턴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p> <p>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45 전인종족문화예배: 화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p>사랑의동산교회</p> <p>담임목사: 강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전 8:30 세백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ey Ave., Hicksville, NY. 11801</p>	<p>어린양 개혁 교회</p> <p>담임목사: 유승혜 EM 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후 1:50 주일3부예배: 오후 1:50 찬양예배: 오후 04:20 세백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예배: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백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기도: 매일 새벽, 저녁, 다짐 금요찬양기도: 목요일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헌</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예배: 오전 5:30 오전 9:30(주일)</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p> <p>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기본으로 돌아가라

모든 운동에는 기본동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동작을 잘 배운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도 기본동작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본동작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환란의 폭풍 속에 서있게 되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첫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시119:73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진리가 무엇입니까? Who made you? God! 누가 나를 창조하셨느냐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지금 겪는 고난의 시간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질병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치료되어야 할지 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근본 믿음을 가지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위로해주시는 분이시며,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은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IEA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 지도자양성 통해 세계 선교

IEA 목사안수식 열고 4명 안수

국제복음주의협회(IEA, 총회장 제임스송 목사) 목사안수식이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미조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IEA본부에서 거행됐다. 이날 엘리자베스 전도사 등 4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오명환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사회로 열린 안수식은 임정우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가 기도했으며 이희철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교무처장)가 성경봉독, 피영민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가 ‘목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딤후4:12-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제임스 송 목사 인도로 서약했으며, 안수례, 안수선포 및 안수증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 고홍석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가 격려사를, 린텔 슈메이

커 목사(미드웨스트대학교 이사장)가 축사했으며 안수 받은 이의 대표로 아브라함 오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안수식은 데이비트 박 목사 축도로 마쳤다. IEA는 세계 지도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해 지난 1983년도에 창설(설립자 Dr. James Song)됐고, 1986년도에는 미드웨스트 대학교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IEA 산하에는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워크(WCSN),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글로벌에이트웨이대학교(GGU)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며, 세계 선교 전략지에 인재 양성 기관을 세워나가고 있다. <박준호 기자>

하기야 감독집무실 앞서 항의집회

UMC 한교총, '주님의 정의 이루소서' 기도회

연합감리교회(UMC) 한인교회 총연합회(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 산하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가 주관한 그랜트 하기야 감독(UMC 가주태평양연회 감독)에 대한 항의시위가 5월 21일 오전 11시 패서데나에 위치한 하기야 감독 집무실이 있는 가주 태평양연회 연회 본부 앞(110 S Euclid Ave, Pasadena, CA)에서 열렸다. 이날 벨리연합감리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밴나이스연합감

리교회, 드림교회 등에서 참석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집결했으며 “Grant, You are NOT my bishop” “Korean Pastors Matter!” “Stop Racism in UMC”란 피켓을 들고 “우리는 승리하라(We Shall Over Come)”란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쳤다. ‘주님의 정의 이루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와 항의시위 1부 항의문 발표는 전평연(전국평신도연합회) 서부지역 부회장 박성수 장로가 진행

했고 2부 기도회는 중보 기도팀을 이끄는 곽태후 장로가 인도했다. 참가자들은 통성으로 울부짖어 기도했고 일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기도회와 집회는 모두 영어로 통역됐다. 이날 남가주 한인교회에서는 지난주 하기야 감독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한인 교계 6개 단체를 대표해 샘신 목사(KACC 창립준비위원장)와 강태광 목사(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11면으로 계속)

트럼프 또 대통령 ...

(2면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한층 막강해지고 있다. 이달 12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비공개 투표를 통해 당내 서열 3위인 전국위원회 의장(Chair of the House Republican Conference)을 맡고 있던 반트럼프 성향의 리즈체니(Liz Cheney) 의원을 쫓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온 엘리스 스테파니(Elise Stefanik) 의원을 뽑은 게 이를 보여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활동

을 본격 재개하고 이에 맞서 반대편 진영이 뭉친다면, 또다시 ‘트럼프 효과’ 같은 반사 이익을 주류 미디어들이 일부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로 분열된 ...

(3면에서 계속)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수는 아직은 미약하며, 지속적인 연금 지급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웨스퍼스의 복지계획 상임디렉터인 마틴 바우어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인 투표처럼 간단하지 않다. 수 세기 동안 연합감리교회는 각 교회의 자산을 교단 전체를

위해 신탁한다는 조항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자산을 갖고 떠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장정의 두 가지 조항 중 하나를 사용했는데, 두 경우 모두 교회의 규모에 따라 1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 의무를 교회가 지출해야만 하며, 교회가 떠날 수 있는지는 교회가 소속된 연회의 최종 승인도 필요하다. 두 조항 중 하나는 해당 교회

가 연합감리교회로서 문을 닫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교단을 떠날 때 그 교회의 자산을 되찾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각 교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의 이유’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불과 얼마 전에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규정했지만 여러 교

회가 이미 2년 전 이 법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어느 조항을 사용하든 탈퇴과정은 교회와 연회 모두의 많은 시간 소비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비롯한 만만치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 연회는 떠나는 교회들에 연금 부채와 목회자 최저 임금을 위한 기금 및 미국과 전 세계의 사역을 후원하는 선교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The header includes '서부(CA)교회안내'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2021년도 졸업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21년 제 32회 졸업식이 6월 7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온라인 동영상 제공). 이날 설교는 오세훈 목사(KAPC 총회장)이며 졸업자는 △목회학석사: 김성은, 문맹숙, 이성남, 정수자, 최의화 △선교학석사: 장연숙, 최화순 △신학사: 김복순, 박경희, 윤경선 등 총 10명이다.
▲문의: (718)463-7163

뉴욕교협 평등법 반대 영상 및 서명 배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는 지난 5월 14일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 평등법 설명 세미나(강사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의 핵심 내용을 35분으로 요약한 영상을 회원교회들에 배포했다. 또 반대 서명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했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000zWy1bDVI>, 서명은 <https://p2a.co/BN6BJTc>를 클릭해 할 수 있다.
▲문의: (718)279-1414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선교바자회가 6월 5일부터 한 달간 매 토요일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 지하 친교실과 주차장에서 열린다. 음식주문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718)886-4040

“한 달란트” 복사인회 및 간증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박성현 박사와 장현경 교수의 부부 공동저서 “한 달란트”의 복사인회 및 간증이 6월 7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hyungjungang@gmail.com

청소년 봉사자 모집

패밀리리치 어린이 여름캠프를 함께할 고등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격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돕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프로그램은 6월 29일-7월 29일 진행된다. 6월 1일-28일 의무 훈련 참석.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상 관련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201)242-4422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임원들과 기념촬영 했다.

공감 얻으며 시대 맞춘 제도 만든다

뉴욕교협 특별혁신기획위원회 첫 모임

제 47회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 특별혁신기획위원회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교협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기획위원장 유상열 목사와 부위원장 전희수 목사, 신헌택 목사(법규위원장), 김원기 목사(증경회장단 회장대행), 임병남 목사, 현영갑 목사, 황영송 목사, 장규준 목사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교협 임원들과 1부 경건회를 드렸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누가복음 7장 31-35절을 본문으로 “공감”에 대해 강조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칭찬하셨다”며 “이 시대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고 허울 좋은 (평등)법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교회도 성격적이지 못한 조직으로 수천 년 전통이 파괴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또 “혁신이라는 말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교협의 목표와 방향이 이

시대와 맞는지? 이 시대에 교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위기에 처한 교회의 확장 △많은 교회의 참여 △목회자의 세대간 협력 △불신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등에 대해 연구하며 천천히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며 유상열 위원장을 소개했다.

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오늘은 특별혁신기획위원회의 출발을 알리는 모임”이라며 위원들을 소개하고 1명이 개인상의 이유로 사임했기 때문에 1명을 더 총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열 목사는 “혁신, 또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한 변화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합리성, 보편성, 효율성, 투명성 있는 큰 틀의 제도 세우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주일 후인 28일에 2차 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이날 운영체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신헌택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한인코커스 신임회장 정인구 목사

UMC뉴욕연회 한인코커스 줌화상으로 정기총회

연합감리교(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정기총회(회장 이용연 목사)가 5월 17일 오전 10시 줌 화상으로 열려 신임 회장에 정인구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회장 이용연 목사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요21:1-14)라는 제목으로 팬데믹과 교단분리로 어려운 현실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신 말씀은 1)순관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며 2)내 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며 3)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라며 내외적으로 힘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다.

안수 받은 목회자는 △준회원 4명(리디아한, 최대호, 이선용, 홍성진) △정회원 5명(양조셉, 은한빈, 우호정, 김제인, 이재삼 목사) △은퇴목회자는 김재경 목사다.

이번 회장선거는 교단분리를

놓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임회장에게 가는 기대가 컸다. 이용연 목사의 기도 후 투표가 진행돼 26표 중 19표를 얻은 정인구 목사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인구 목사는 “중요하고 어려운 때 뽑아주어 감사하다.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단분리와 팬데믹으로 교회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기도하며 사명감을 갖고 회원목사들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 기도와 후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정인구 목사는 “5월 21일 오후 1시에 뉴욕연회 감독과의 대화가 줌을 통해 진행된다. 임원진들이 이미 질문을 감독에게 보냈으며, 대화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 감독과 대화할 것이다. 많이 참여해 한인목회자와 감독 의사가 서로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뉴욕연회 두 한인 감리사인 임연희, 김성찬 목사가 참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정기총회가 줌화상으로 진행했다.



뉴욕 청소년센터와 가정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줌으로 진행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한인교회의 역할”

뉴욕 청소년센터/가정상담소 공동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후원하고 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와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공동으로 주최한 제 4회 뉴욕목회자 컨퍼런스가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가정폭력 근절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한인교회들의 역할”라는 주제로 줌화상으로 개최됐다.

컨퍼런스는 조원태 목사(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뉴욕우리교회) 사회로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기도 후 이지혜 소장이 인사하고 이어 뉴욕가정상담소의 전문가 2명이 발제했으며, 참가 목회자들의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마무리 기도는 권태진 목사가 했다.

이지혜 소장은 인사를 통해 지난 32년간 한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왔다고 상담소를 소개했으며, 팬데믹 후 24시간 핫라인 통화회수가 3배 정도 증가했고, 상담 케이스도 49%는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 팬데믹에 더해 심해진 아시아인 혐오범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며 한인교회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시니어 프로그램 디렉터 유미정 상담사(LMHC)가 “가정폭력, 가족의 정신건강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가정폭력의 정의와 형태, 가정폭력의 사이클, 가정폭력의 특징 및 원인,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족들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들, 가정폭력과 교회의 역할, 가정폭력과 뉴욕가정상담소의 역할 등의 내용을 전했다.

유미정 디렉터는 “가해자라고 하면 싫어한다. 심정적으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교회

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아버지교실을 열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속의 화를 나누며 같이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달려가 도와드리고 싶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임신영 상담사(MFT)는 “행복한 관계”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가정폭력”의 해결방법을 다뤘다.

임 상담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9가지 습관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한다 △아무리 바쁠 때라도 함께 할 시간을 낸다 △다자주 마음껏 웃는다 △상대 부부적인 면을 계속 이야기하기보다 긍정적인 면에 감사한다 △상대에게 공감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신뢰를 위해 언제 집에 들어갈지를 늘 알린다 △늘 서로에게 사랑의 추파를 던진다 △싸워도 깨끗하게 싸운다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간다 등이다.

발제 후에는 참가 목회자들의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늬움의집 셸터 후원금 전달

한인노숙인 셸터를 구입 중인 뉴욕늬움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후원금이 담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뉴저지찬양교회(담임 허봉기 목사)가 1만 달러를, 같은 날 뉴저지 거주이병국 이혜숙씨도 2천 달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장근식 장로와 장영순 권사가 1천 달러를 전달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웨치스터교협, 박호성 목사 치유위한 5차 기도회

웨치스터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경렬 목사)는 지난 13일 웨치스터신교회에서 박호성 목사 치유와 회복을 위한 5차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설교는 노기송 목사(“광야의 훈련소”, 신

8:2-3)가 했다. 박호성 목사는 현재 오른손만 약간 움직이는 정도이며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자택을 방문해 마사지를 해주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기사제공: 웨치스터교협)



BTS의 아리랑을 정지현과 Bonstar 댄스그룹이 공연하고 있다.

뉴욕에 희망을 선사한다...

뉴욕교협 이사회 주최 ‘희망콘서트’ 성료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하고 교협이사회가 주최한 ‘희망 콘서트’가 5월 23일 주일 저녁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

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는 “지난해 봄은 코로나 사태로 지구촌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올 봄이 끝나기 전에 희망의 모임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오늘 모임은 47회기 교협이 추구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교회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는 주제로 이사회가 전적으로 수고해 베푸는 음악회”라고 소개하고 “특별히 동포 및 미래의 한인 지도자들이 되려는 정치 지망생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이준범 장로는 “뉴욕지역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희망 음악회”라며 “뉴욕시의회 위원직에 출마한 한인 2세 정치인들을 위한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순서에 참여한 예술인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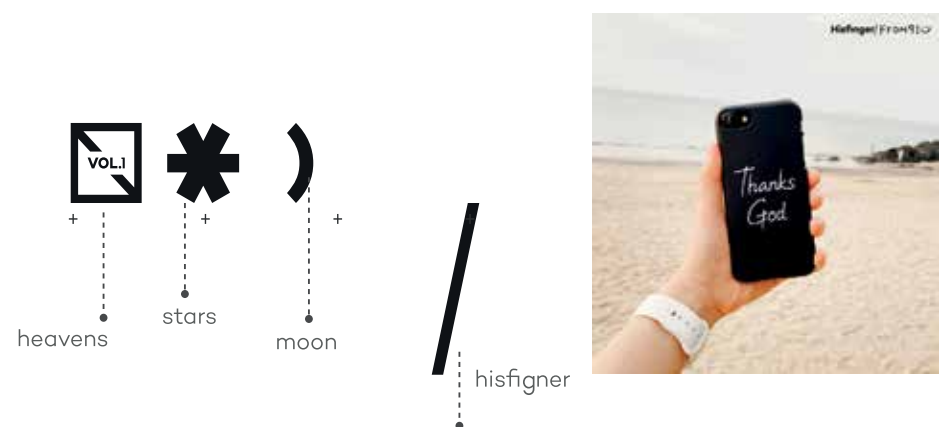
음악회에는 △지휘: 이정석, 양근식 △성악: 소프라노 박지원,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테너 김건수, 바리톤 양근식 △국악: 생활 gamin, 한국무용 이수희 △연주: 바이올린 정미연, 피아노 Joyce △K-Pop: 정지현과 Bonstar 댄스그룹 등이 출연했다.

첫 순서는 BTS의 아리랑과 생활과 한국무용의 아리랑이 공연됐으며 비바디의 사계(여름), 한국가곡과 성가, 사중창 등이 연주됐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 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남가주헬로십교회 창립27주년 감사주일예배에서 최병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

남가주헬로십교회 설립 37주년 기념예배

남가주헬로십교회(담임 박해성 목사) 설립 37주년 기념예배가 23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박해성 목사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성악제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경복독후 헤세드중창단이 특송을 불렀다.

이어 최병수 목사(그레이스 실버미니스트리)가 '내가 했다/내가 할 일'(엡4: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병수 목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의 구원이다. '은혜로 내가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생겼고 그것보고 우리를 구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나만 구원한 것 아닌 구원받은 자를 모아주셔서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지체로 하여 하나로 묶어 주셨다. 성도를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역사하게 하신다. 교

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기도도 전도도 힘써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 구원받은 것, 내 삶을 책임져주시고 교회로 성도 모아주시고 교회에 목회자 세우고 말씀양육 훈련 하나님 사역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사람을 대해 오래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최병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원로장로 추대식을 가졌으며 김덕승 장로가 원로장로로 추대됐다.

(박준호 기자)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창립32주년 특별부흥회에서 박순애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절대절망에서 절대희망으로...' 박순애 전도사초청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설립32주년 특별부흥성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임시당회장 구분철 목사) 설립 32주년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부흥성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절대절망에서 절대희망으로' 기적같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일 첫날 저녁집회에서 박순애 전도사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시40: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를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저절로 흘러온다. 그러려면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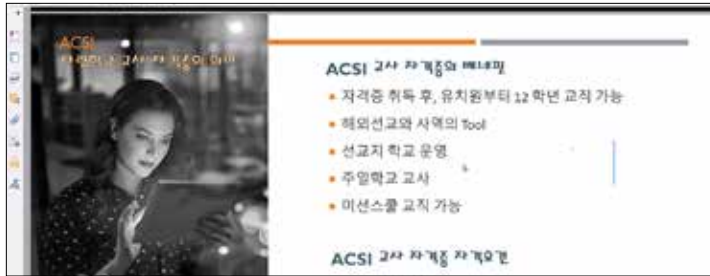
박 전도사는 "우리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도는 나를 꺾기 위해서이고 내가 꺾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며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는 종교적인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 심령의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돼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시험 환란은 지나가게 된다. 신앙에서 생명이 인내이고 그 인내는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 하나님은 인내 속에서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믿음은 변화다. 변화되지 않으면 예배도 그 무엇도 헛된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직분으로 서는 것 아닌 진짜 나 가짜나로 서는 것이다. 진짜는 생명이요 가짜는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안에 계시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무엇이 없어도 상관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GMU 사립학교 및 성경교사 자격증 설명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교육선교 앞장...강사 구자혁 교수

GMU, 사립학교 및 성경교사 자격증 설명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사립학교 및 성경교사 자격증 설명회를 24일 오전 11시 학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개최했다. 강사는 구자혁 교수(분교 행정처장). 강의는 △ACSI 사립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자격증의 의미 △GMU학생이 가능한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ACSI Bible Specialist 자격증 안내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 및 절차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구자혁 교수는 "ACSI에는 정규 크리스천사립학교와 일반 대학교가 가입돼있다. 알래스카바이블칼리지, 바이올라대학교, 콜로라도크리스천대학교, 커버넌트대학교, 그레이스대학교, 리버티대학교, 무디성경학교 등과 활동대가 가입돼있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GMU 역시 ACSI에 가입돼 있다"며 "성경교사가 되기 위해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취득해야 하는데 GMU의 경우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자격증 신청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혁 교수는 "한국이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된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갈 때 병원선교와 더불어 교육선교를 했기 때문"이라며 "영적 지도자와 기독교마인드를 가진 사회지도자가 양성된다면 그들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이 심어질 것이다. ACSI를 통해 성경교사와 교장 교감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면 다음세대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혁 교수는 "GMU가 사립학교 및 성경교사 자격증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되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 인가된 타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자격증을 취득시 필수가 실습이므로 GMU가 교육실습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으며 ACSI 회원학교를 찾아가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중인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

▲문의: (714)525-0088



수잔정 박사가 북콘서트에서 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수잔정 박사북콘서트 열어

수잔정 박사의 저서 '나와 나의 가족이 경험한 ADHD' 북 콘서트가 23일 오후 4시 예카페에서 열렸다.

소프라노 케일라 김의 사회로 열린 북 콘서트는 수잔정 박사가 책을 쓰게 된 이유와 배경 등 자신과 가족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수잔정 박사는 "주의력 결핍으로 오는 증상은 △세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

오랫동안 주위집중이 힘들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일을 끝내지 못한다 △일을 기획하지 못한다 △오래 걸리는 일은 피한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바깥 지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기억할 것들을 잘 잊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과잉행동-충동성에 의한 증상으로는 △손발을 꼬치락 거린다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자리를 뜬다 △뛰어다니거나 기어 올라간다 △조용하게 놀지 못한다 △자동차 기어가 걸려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 한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한다 △차레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도중에 끼어들거나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DHD에 걸린 자들의 특징 중에는 한곳에 올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의사, 교수 중에 ADHD에 걸린 자들이 많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으며 정치인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첼리스트 김원선과 피아니스트 김혜경이 찬조 출연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고 소프라노 케일라 김과 함께 마지막 곡을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나눔은 이웃 살리고 자신 살리는 축복

월드쉐어USA 2021년 사순절 '나눔의 음식' 성료

World Share 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2021년 사순절 나눔의 음식 프로젝트를 마치고 언론을 통해서 후원기관, 후원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대표는 경건한 사순절의 영성을 나눔의 영성으로 승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음식에 동참한 성도들은 40일간 금식하며 금식비 120달러를 후원했고, 금식에 동참하지 못한 다수의 성도들도 사랑의 나눔을 위한 성금 120달러로 동참했다.

월드쉐어USA는 사순절 나눔 프로젝트로 아이티 쓰레기마을 학교 돕기, LA다운타운 노숙자 쉼터 그리고 노숙자촌(텐트촌)에 생필품을 나눴다. 아이티 아동들은 사순절 기간 내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더 많은 사랑을 쏟았고 부활절에는 큰 파티를 열었다. 매주 정기적으로 노숙자들을 찾았고, 도시빈민촌(노숙자 텐트촌)도 정기적으로 찾았다.

기획자 강태광 대표는 "사순절의 나눔의 음식은 절반의 성공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

셨지만 목표한 만큼 다 섬기지 못했다"며 "기약 없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여주셨다. 나눔은 이웃을 살릴 뿐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라며 나눔의 사순절을 매년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021사순절 '나눔의 음식'에 여러 교회들이 동참했다. 특히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림학준 목사),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 콜로라도스프링스한인침례교회(박광규 목사), 예은교회(곽건섭 목사), 주하나교회(오정택 목사) 등 여러 교회들이 금식하며 은혜롭게 사순절을 보냈고, 루이지애나 반석교회(이용구 목사)는 부활절 예배 헌금으로 동참했다. 또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며 많은 응답과 축복을 체험했다.

월드쉐어는 LA 다운타운 노숙자 쉼터 및 삶의 베타에 내몰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락처: (323)578-7933
(기사제공: 월드쉐어USA)

서부교계 게시판

KAPC 13대 총회장 이희봉 목사 별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13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희봉 목사(덴버한인장로교회 원로)가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8세. 고 이희봉 목사 천국환송에 배와 하관예배는 6월 3일(목) 오후 2시, Crown Hill Chapel(7777 W. 29th Ave. Wheat Ridge, CO 80033)에서 총회장 오세훈 목사 집례로 갖는다.

▲문의: (303)422-6950교회

어? 성경이 읽어지네! '목회자 성경방'

어? 성경이 읽어지네!(샌터성경사역원 대표 이애실) LA 지방(지부장 김덕수 목사)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주일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목회자 성경방이 열린다. 본 성경방은 Zoom으로 진행되며 교재는 성경책, 성경방워크북,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며 참석대상은 목회자(목사, 선교사, 사모, 전도사)다.

▲문의: (213)220-6729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한미장로교 장학재단(회장 박태수 장로)이 2021년 장학생 선발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미주지역 한인장로교회 소속 학생으로 기독교신앙이 투철하고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로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신학생은 미국장로교회(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Div과정 중인 미국시민권/영주권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주소, 전화번호, 사진 포함),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본인(부모)의 2020년 연방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EZ 사본, 추천서 2통(담임목사와 교수 각 1통), 학업성적표다. 신청마감은 7월 25일이며 신청서는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로 보내면 된다. 장학금과 증서는 8월 31일에 직접 발송된다.

▲문의: (734)981-5549

담임목사 청빙

대흥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가입돼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2종 언어(한국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정규신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목회경력(부목사 포함) 5년 이상(신청일 기준)인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근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사모소개와 가족사진), 3인의 추천서, 목사안수증,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이며 서류는 7월 22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application.dkpc@gmail.com

교육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용철 목사)는 교육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어와 한국어 가능한 자. 사역은 교육부서 전담이며 파트타임과 풀타임 여부는 협의 후 결정한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개인(가족) 최근 사진,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추천서 2부다. 제출은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drjho@hotmail.com

UMC목강협 웨비나

연합감리교 한인목회강화협의회(목강협, 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가 주관하는 온라인 역사기행이 6월 한달 동안 '한인 이민교회의 뿌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일정은 6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3회에 걸쳐 서부 오전10시, 중부 12시, 동부 오후 1시에 열린다. 주제와 강사는 첫날 'In the Beginning: 조선선교와 이민교회의 뿌리'/이덕주 교수(감신대 교회사 은퇴), 둘째 날 '최초의 한인이민교회와 그 역사-하와이'/이덕희 소장(하와이한인인민연구소), 셋째 날 '이민교회, 민족교회'/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신대원 은퇴).

▲문의: (917)446-0966



UMC 한국총 전국 평신도연합회 회원들이 하키야 감독 집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하키야 감독집무실 앞서 항의집회

(9면에서 계속)
지난주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 집례에 하

키야 감독이 방문하자 하와이 지역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똑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주에는 감독의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열린 것이다.

한편 그랜트 하키야 감독은 지난주 연회소속 한인교회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냈다. 서신에서는 감독과 감리사들은 신학적 견해 차이에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이 사실관계에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소문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썼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 다운타운에 나가서 노숙자를 섬기고 있는 월드쉐어 USA 스텝들

‘화해조정위 구성-목회자 연금’ 발전 모색

예장백석 총회정책포럼 열고 교단 현안 논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24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총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화해조정 방안, 연금제도 개혁 등 교단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수 교단 미래발전위원장은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 없는 총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기소나 재판에 따른 권징보다는 화해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성격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장백석 교단은 선거 때 끊임이나 항을 제 공했을 경우, 재산권 문제를 제외한 교회 문제로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 면직처리 한다”면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복되는 소송과 끝없는 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성도와 목회자는 재판 절차와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권징절차를 따르다 보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재판의 후유증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 내 존경받는 목회자와 전 총회장, 법률가 등으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이 아닌 화해와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청원 등 재판 절차를 밟기 전 화해조정위원회로 사건을 우선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선 교단의 주요 현안인 연금과 노회 구역 조정 문제도 나왔다. 연금재단준비위원회 이영주 전 연금재단이사회 총무는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3.3세인데, 75세 은퇴 후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할 연금제도는 턱없이 부실하다”면서 “15년 전 연금재단 정관과 업무지침을 결의했지만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1만1000여명의 교단 소속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지려면 총회 주일연금, 임차사업 등을 진행해 예장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처럼 연금제도를 탄탄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기 지역조정위원장은 “예장백석 총회가 건강해지려면 112개 노회가 건강해야 한다”면서 “교단 내 소통을 강화하려면 무지역과 지역노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지교회를 돕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회의 소속교회가 40개 이하인 24개 노회는 통합을 유도하고 최소 100개 소속교회가 되도록 자유로운 진출입을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도시는 구별노회를 구성하고 지방은 근접 거리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게 좋다”면서 “노회 분리나 교회·교역자의 신규 가입은 교회가 소재한 지역 노회로 조건부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개념 삭제, 동성결혼 등 가족해체 우려”

한반교연, 남인순 의원과 면담...법 개정 위험성 전달

한국교회반동성에교단연합(한반교연)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남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한반교연은 남 의원에게 현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의 정의를 그대로 보존하고, 다양한 가족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앞서 남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전제로 짜인 법 이름을 ‘가족

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반교연은 개정안이 불려올 가정 해체 위험성을 전하며 “헌법과 민법의 기본 전제인 가정의 정의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혼, 1인 가구, 결혼가정, 위탁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보호해 주는 제도 마련 방안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슷한 법이 제정된

유럽에서 동성결혼, 일부다처, 중혼제 등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와 개념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전하지 못한 결합이 포함돼 건강한 가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남 의원은 “염려하는 부분을 의도한 바가 아니며 우려하는 점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실제 20일 지역구 소속 목회자들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남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추상미 최선규 표인봉이 재능 기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17억여원이 모금됐다.

전도 캠페인 중에는 시각장애인 전도도 있었으며 해외로도 확대됐다.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한국 디아스포라가 캠페인 소식을 듣고 자비를 들여 거주지에 복음광고를 했다.

복음의전함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전도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복음광고를 하면서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의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았다. 고 장로는 “비기독교인이 들어와 복음을 듣고 새 신자 교육을 받아 건강한 교회까지 연결되는, 한국형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10월 이전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는 크리스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셀럽들의 간증, 비기독교인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 간단한 교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 7년간 복음의전함을 통해 하나님에 하신 일은 최근 ‘복음의전함’ 책으로 나왔다.

‘교회 위기와 웨슬리 영성’

웨슬리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박창훈 서울신대 교수 발제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앙 선배들의 영성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며 위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웨슬리학회와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0일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성경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1703-1791) 탄생 318주년을 기념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감리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교회 위기와 웨슬리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박창훈(사진) 서울신학대 교수는 “유럽

중세 시대의 흑사병은 코로나 19처럼 충격적인 감염병이었고, 한센병은 그동안 인류를 끈질기게 괴롭힌 질병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이 같은 감염병이 있던 시기에 신앙 선배들의 영성과 행동을 보며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의료 개혁에도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세 수도원은 병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치료보다 격리 및 요양 시설로서 기능했다. 한센병과

“페미니즘 세뇌 교사비밀조직, 적극 수사해야”

8개 단체,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창설

바른인권여성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당당위 등 8개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세뇌하는 것으로 의혹받는 교사 비밀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5월 5일 새벽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

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해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당하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8개 단체는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시민연대) 기구를 창설해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 교육화된 성차별 교육을 폐지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아동학대 의혹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학생들이 받는 연간 15시간 성교육은

전부 페미니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교육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적 특질에 따라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과 공공증을 인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려 깊고 상대를 존중하며 예의 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학교 성교육은 일방적 페미니즘 사상이며 강사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사실상 세뇌하는 교육”이라며 “강사들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사 양성 과정에서 100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은 데다 페미니즘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페미니즘 세뇌교육에 대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며 검찰과 경찰이 이에 대해 즉각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차별을 조장하고 교육적 위기를 초래하는 잘못된 페미니즘 성교육의 폐기를 촉구했다.

‘찬송가국제운동본부’ 출범

교회음악발전·찬송가 보급 위해

찬송가국제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유나이티드문화재단 더글라스홀에서 창립예배를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성가대 월 1회 찬송가 부르기’, ‘정규예배 때 찬송가 부르기’ 등의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단체 이사장 강덕영(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장로는 창립예배 인사말에서 “한국교회 음악발전과 찬송가 보급 운동을 위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속에 찬송가가 넘쳐 나고 공예배 때 교회에서 최소한 찬송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우 목사는 설교에서 “찬송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려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고 했다.

축사한 김정철 CTS기독교TV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예배 회복을 위해 찬송가를 지켜야 한다”며 기독교 문화 확산과 다음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찬송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신대 교수 일동, 미얀마 사태 입장 발표

총신대 이재서 총장과 교수 일동은 지난 17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총신대학교 교수의 입장’과 결의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와 경찰은 시민들에 대한 발표 등의 무력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감금한 지도자들을 석방하며 비상사태 선포를 취소하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정부 수립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

제기구 및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이익을 쟁하는 자세에서 돌이켜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하라”며 “한국교회는 아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미얀마와 미얀마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후원 방법을 모색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북한선교 가능성

기독교통일학회 제2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300년간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아 기독교의 승리를 쟁취한 비결은 상황 판단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무모한 저항이나 투쟁 대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창섭 총신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강일교회에서 열린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안인섭 교수) 제28차 정기학술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발립 목사) 북한교회개척학교 1차 포럼으로도 진행됐으며 줌으로 생중계됐다. 주제는 ‘북한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이다.

심 교수는 “교회론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북한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정부가 지속하는 동안 북한에서의 복음 전파는 사실상 비관적”이라며 “하지만 통일 혹은 북한의 개방을 바라보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북한사회에 세워질 교회 모습을 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북한교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초대교회는 예수의 대명령인 이웃을 사랑하고 오이코스(성도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론을 택했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론을 논하기 전에 교회 본질을 찾아 정치적 색깔을 배제하고 선택적인 진리의 삶으로 그

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교회론적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북한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남한의 기존 교회 체제를 이식하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념 중심의 조직된 교회 개념보다 북한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 중심의 복음적 활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개방된다면 북한이 복음 전파에 있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남한의 200여개 교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땅에 들어가 각자의 교회를 세운다면 북한 땅에 영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 교회들은 북한 땅에 오이코스 정신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 일을 위해 통일 전에 남한교회가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역사적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민 진민수 백석대 교수는 ‘중국교회 회복 사례 연구를 통한 북한교회’라는 제목으로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 선교에 열정이 있어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 받기 원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박사는 ‘북한교회 재건운동의 역사: 세 사례를 중심으로’, 이규영 서강대 교수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의 교회 회복: 독일(동독) 사례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박현신 총신대 교수는 ‘팀 켈러의 센터처치와 북한교회’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난 런던, 브리스틀, 뉴캐슬의 병자들에게 악을 나눠줄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책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모음’을 출판했다.

한국교회가 비대면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는 현시점에 웨슬리의 옥외 설교를 참고해볼 수 있다.

박 교수는 “부흥운동 초기 웨슬리에게 허락된 강단이 없었다”며 “웨슬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며 이것이야말로 옥외 설교의 분명한 선례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옥외 설교는 영국국교회의 정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노동자 등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박 교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옥

외 설교는 정치·경제적 계급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문화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평생 기도, 통독, 묵상, 성찬식 참여, 교제, 자비에 힘쓴 웨슬리의 영성 훈련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은 중병을 앓는 사람들, 의료진,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치료 방법을 찾는 연구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의 창 (17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영적 각성으로 깨어난 근대의 영국

호숫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 파문은 호수 전체로 퍼진다. 사람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두 사람의 영적인 각성은 그 사회를 진동하게 한다.

어두웠던 시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불꽃처럼 쓰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오늘 날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그 사람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

리클럽(Holy Club)을 만들었다.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원에서 고전과 신약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형인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에 있는 링컨대학에 특별연구원 강사가 되어 이 모임에 합세했다. 이 홀리클럽 모임에서는 예배와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주린 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 훗날 이 모임에 유명한 칼빈주의자(Calvinist)인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70년)도 함께 활동하였다. 모임은 크지 않았으며 25명 정도였다. 그러나 규율을 엄격히 지켰으므로 메소디스트(Methodist)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한 웨슬리는 본국으로 돌아가 1738년 5월

메소디스트 교회 설교자 수는 541명, 회원 수는 134,540명이었다. 이렇게 훗날 감리교(Methodism)가 된 요한 웨슬레 부흥운동은 타락한 영국사회를 갱신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교단인 감리교단을 탄생시킨 것이다.

2. 찰스 시몬(Charles Simeon)과 기도회

찰스 시몬(AD 1759-1836년)은 1779년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 학생시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 그는 1782년 졸업과 함께 왕립대학 특별연구원과 동 대학의 성삼위교회(Holy Trinity Church)의 교목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사역은 54년간 계속되었다. 그는 공적인 활동 외에 학생들을 자기 집에 비공식적으로 초대하여 성경연구와 기도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시몬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1848년에는 프라이빗(Private) 기도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858년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회 선교단이 설립되었다. 그 취지는 기도와 자료검토를 위한 집회를 자주 가지므로 보다 광범위한 선교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역에 지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영국 대학생복음운동이 체계화된 시점은 1877년에 결성된 케임브리지 기독교생단(The Inter-Collegiate Christian Union)에서 찾는다. 이 모임은 처음에 소수로 시작하였으나 마침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는 기독교생단을 포함하여 각 나라마다 다양한 대학복음단체 학생들의 우에 있는 일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3. 케임브리지 세븐(Cambridge Seven)

영국 대학선교 역사에서 케임브리지 7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케임브리지 7인은 친구, 운동서를 관계 등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 운동은 미약하였고 자주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1882년 미국의 복음전도자 D. L. Moody가 케임브리지에서 일주일간의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 집회를 통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며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회심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케임브리지 7인은 영국 상류층 출신의 대학인이요, 인기 스포츠의 유명 선수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명예, 부, 사회적 지위,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들은 젊은 날부터 일생을 선교의 산재사로 드렸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의 홀몬산학선교사지원자모임(SVM, Student Volunteer Missionary)을 형성하는 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IFES의 설립자인 Robert Wilder와 R. S. Forman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세대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총 출신의 대학인이요, 인기 스포츠의 유명 선수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명예, 부, 사회적 지위, 권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들은 젊은 날부터 일생을 선교의 산재사로 드렸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의 홀몬산학선교사지원자모임(SVM, Student Volunteer Missionary)을 형성하는 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IFES의 설립자인 Robert Wilder와 R. S. Forman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세대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맺는 말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천적 힘은 무엇이었나? 산업혁명, 막강한 군사력,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력 등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핵심은 영적인 깨우침이었다. 당시의 웨슬레 형제를 중심으로 한 옥스포드대학의 홀리클럽, 교목인 시몬을 통한 케임브리지대학의 선교운동, 조지 화이트필드의 부흥운동 그리고 케임브리지 7인의 중국 선교사헌신 등은 영국사회를 일깨웠으며 정화했다. 이러한 영적각성운동들은 여러 조직을 만들게 되었으며 선교회들은 세계선교를 향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가? 18세기 영국 못지않게 사상적으로 혼돈스럽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대에 교회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한다. 절대적 복음 하나로 승부하며 세상에 영적 파문을 일으킬 주의 종들은 어디 있는가?

jrsong007@hanmail.net

난세(亂世)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영웅은 역사를 창조한다. 이 시대는 영적인 파문을 일으킬 인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웅이란 특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한 자이다.

감히 반응한 당시 자신일 수도 있다.

1. 웨슬레(Wesley) 형제와 홀리 클럽

요한 웨슬리(AD 1703-1791)는 성공회 목사인 사무엘의 19명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3-88년)는 18번째로 태어났다. 그들의 어머니 수잔나(Susanna)는 자녀들에게 심원한 교육적 영향을 끼친 경건한 어머니였다. 동생 찰스는 형이 이미 졸업한 옥스포드(Oxford)대학에서 '홀

24일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던 중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이런 중생체험을 갖게 된 계기가 모라비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자 독일로 건너가서 진젠돌프 백작을 만났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에게 배운 바가 크지만 그들보다 더 행동적이며 덜 신비주의적이며 폭 넓은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중생과 견학으로 심적인 확신과 사역적 정리가 된 그는 이제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년에 약 8000km를 말을 타고 여행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다섯 번 설교하였다. 그가 죽을 때

매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고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꿈도 가졌다. 시몬에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훗날 영국과 세계도처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1811년에는 시몬의 영향으로 케임브리지대학에 외인 성서회가 조직되었다. 그 모임의 목적은 전 세계에 걸쳐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시몬이 케임브리지에서 남긴 최대의 업적은 1836년 죽은 다음에도 그가 힘쓰던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④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외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바나바는 고향에서 순교하고 고향에 묻혀 있습니다.

바나바 이름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가가 썼다는 바나바 행전(Acts of Barnabas), 바나바서신(Epistle of Barnabas), 바나바복음서 등등입니다. 바나바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한 문서들입니다. 몇 문서는 상당한 권위를 갖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서들입니다.

우선 마가가 썼다는 바나바 행전(Acts of Barnabas)은 바나바와 동역자 바울의 삶

다음 바나바서신(Epistle of Barnabas)은 AD 70-13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소위 안티레고메나(Antilegomena, 신약성경이 될 것인가? 아니냐? 논란이 되었던 문서)입니다. 바나바서신은 거의 성경으로 인정받을 뻔 했던 문서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복음서(Gospel of Barnabas)입니다. 이슬람문서로 보이는 책입니다. 조잡한 언어와 황당한 주장이 담긴 바나바복음서는 바나바 이름을 도용한 발칙한 문서입니다. 바나바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슬람 선지자 함무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소개하는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행11:24)한 지도자로 격려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격려자의 품성이 바울을 통해 더욱 빛났습니다. 바나바는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을 찾아가 돕는 바나바를 보며 그가 얼마나 섬김의 사람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친화력, 섬김의 마음을 가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와 후견인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바나바 까닭에 바울의 사역과 삶은 교회사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중요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 에바브라, 에바브라디도 등등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고비마다 등장하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두 번씩 바울의 후견인을 자처합니다. 먼저 9장 27절에서 회심한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체험과 담대히 예수를 증거함을 소개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장 25절에 안디옥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던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바나바가 바울

의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24회(4장, 9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등장합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 서신서에 5회(갈 2:1,9,13, 고전 9:6, 골 4:10)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선교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의 성경에 첫 등장은 자신의 발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유무상통

바나바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밖의 자료에서 풍성합니다. 콜먼(Kollman)과 밴던(Van Deun)은 교회의 전승을 언급하면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던 바나바는 젊은 학생 바울을 이미 알았다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 자처, 공동목회 제안 리더십과 격려자 품성이 바울 통해 더욱 빛나

하는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미담을 남깁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권위자(위로자: man of encouragement)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격려하고 섬기는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를 연구한 사람들은 바나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나바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유세비우스는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문도 중의 하나였다고 전합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주장했고, 코니베어와 하우슨 등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

한계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순교했습니다. 밴던은 55년경 구브로 살라미스에서 돌아 맞아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나바 고향 구브로의 살라미스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바나바의 마지막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태생의

소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소와 구브로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을 소개합니다. 5세기와 6세기에 회람문서로 많은 성도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국인 목사님이 쓴 동명이서(同名異書)가 있는데 전혀 다른 책입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둘째 사망(계 21:7-8)찬202장

첫 부활에 참여한 교회를 가리키는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을 받습니다(7). 이것은 새언약에 참여한 자가 받을 기쁨으로 부자간의 영원한 교제를 기본으로 한 은혜입니다.
둘째, 그러나 불행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합니

다(8). 여기에 열거한 8부류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행함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셋째, 그들은 유향불에 던져집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로 된 홍악한 곳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화 어린양의 신부(계21:9-11)찬162장

신선신지 위의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합된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린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곧 하늘에 완성된 구속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째,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다. 모든 교회 역시 그 성품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셋째, 거룩과 순결로 채워집니다. 여기 벽옥은 거룩을, 수정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 거룩과 성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미 그 속에 참여한 우리는 그 은혜를 여기서도 즐기며 그 날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삽시다.

수 천당의 모습 I(계21:12-17)찬541장

주님이 가르치신 장소로 된 하나님 나라는 요한에 의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첫째, 열두 문을 가진 성곽이 있습니다(12-13). 그 동서남북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택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성곽의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셋째, 천사는 그 문과 성곽을 적량합니다(15-17). 이것은 천당이 최고의 실재하는 곳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합시다.

목 천당의 모습 II(계21:18-21)찬414장

천사가 적량한 성곽, 성, 그 기초석 그리고 열두 문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벽옥으로 된 성곽(18) - 벽은 거룩을 표현한 것으로 천당은 하나님의 거룩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둘째, 성은 유리 같은 정금(18) - 세워진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셋째, 각색 보석으로 된 성곽의 기초석(19) -

12종류의 보석인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며 의인, 신(마23:23 참조)의 표현입니다. 넷째, 열두 진주문과 정금도로(21) -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진 그 천당이 나의 분향인 사실을 찬양합시다.

금 천당의 모습 III(계21:22-25)찬167장

그 성 안의 모습과 활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거기에 성전이 없습니다(22). 성부와 성자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달의 비침이 없습니다(23).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밤이 없고 그 빛 아래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24-25). 만국이 빛 가운데로 왕래하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오는 것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곳임을 암시합니다.
모든 상징주의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완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진 활동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의 소망 속에 나아갑시다.

토 천당의 모습 IV(24-26)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당의 활동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 그곳은 적극적인 거룩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밤이 없고 낮에 항상 문이 열려있음이 이를 암시합니다(25). 둘째, 만국의 왕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가는 표현이 없음을 구속의 완성으로 자기 백성을 여러 형태로 불러 모으시는 때이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만유의 회복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옵니다(27). 성령은 천당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올 자격조항을 분명히 하십니다. 모든 죄의 뿌리인 불경건한 자는 못 들어오고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참여합니다. 그 날을 겸손히 준비합시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6)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4)현대 교회 예배에서의 찬양
공식적인 회중 찬양의 모체가 되는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꾸미려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찬양하지 않았다. 그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 그 중심은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를 송축(축복)하는 가사가 있었다(출15:20-21, 출24:1). 이와 같은 찬양의 모습은 구약에서 언급한 최초의 회중 찬양으로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게 된다. 이것을 소재로 지난 회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교회 찬양의 현실을 진단하고 예배찬양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찬양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윤임상 교수
(웰스미션대학교대학원)

한 기사들을 고백한 내용을 함께 동감하며 송축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음악과 악기의 반주소리들에 정작 드러나야 할 가사를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목적과 수단을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음악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Renaissance period)가 되면서 9세기 말부터 시작된 다성음악이 꽃을 피우며 크게 발전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요인은 중세 기독교의 절대 신본주의 규범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의 인간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에 있어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성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창의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2)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며 축복을 드러내는 찬양

오늘날 예배음악은 너무 많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탐미주의(Aestheticism)에 몰두하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려고 복잡한 리듬을 구사하고, 아름다움을 더해 예술의 신비로움을

예배음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송축하는 것에 집중해야 음악의 예술적 소유욕에 빠져 본질 놓치지 않도록

보여주려고 기본 화성을 통한 단순미를 벗어나 화려하고 복잡한 화성(Harmony)을 더 많이 구사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것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연주하기위해 다양한 악기를 등장시키게 하는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을 만들어가고 있다. 밴드 앙상블 또한 편성에 가까운 악기들의 소리가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를 더해가며 오늘날 예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소리로 만들어간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창작예술을 자유롭게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다성음악이 시작된 이후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약 5세기(11-16C)에 걸쳐 노들담 악파(Notre Dame School), 부르그뉴 악파(Bourgogne School), 그리고 플랑드르 악파(Fladour School)의 음악인들이 다양한 음악적 기법들 - 디스칸투스(Discantus), 클라우즈라(Clausula), 아이소리듬(Isorhythm), 칸투스 펠미스(Cantus Firmus), 콘트라 팩툼(Contrafactum), 페로디(Perody) 모방대위법(Limitation Counterpoint) 등을 개발하여 화려한 음악으로의 탐구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2개의 성부로 시작한 다성음악이 여섯 성부, 팔 성부로까지 확대하며 소위 아름다움을 추구한 예술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악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게 한다. 악기들의 소리에 파묻혀 찬양대의 찬양에 담긴 가사를 놓치게 되거나 또 회중찬양에서는 악기들의 반주소리가 너무 커 회중의 소리를 덮어버리게 되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를 놓쳐 버리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예배에서의 회중들로 하여금 그 음악에 동참하여 찬양하게 하기보다는 그저 감상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발전하는 예술세계에 반해 예배음악의 본질과 목적은 점점 더 퇴색되어가게 되었다. 그 중요 요인은 화려한 음악에 대한 추구와 관심에 반한 가사(Text)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곡을 완성하고 거기에 가사를 적용하는 작곡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작곡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안에 담았던 가사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가 쓴 기독교강요에서 "우리는 곡조에 더욱 귀를 기울이다가 가사의 영적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음악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도구로만 쓰여질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터게이트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8)



제5 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의 정체성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성취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아담은 무엇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 진리야말로 인간이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과 일치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칭의 진리와 연결된다.

나우웬은 장애인 아담을 통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일생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성취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사람에게 신에게 인정받고 사랑 받는다는 의식이다. 그러나 장애인 아담을 통하여 인간은 무엇을 성취하여야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사랑 받는 존재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진리이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빚으로 여겨버리고 일을 아니할 지라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롬4:4-5).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실패자로 죽으셨다. 아담 역시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는 태어났을 때처럼 빈약한 모습으로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담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예수님은 본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있다. 차라리 하나님일과 관계가 멀다고 여겨지는 직장일이라면 일의 성공과 칭의는 구분이 되지 않 고 교회일, 선교일을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



사역자의 위험은 일 성취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인정 받으려는 것 눈에 보이는 열매 없어도 장애인 섬기는 자체가 예수님 섬기는 것

질상, 아담은 '입양된'-이었던 우리 가운데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사셨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제공해주어야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이었으며, 또한 나의 소명이자 당신의 소명이다. 이것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장애인선교 사역자들의 위험은 어떤 일을 성취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으려한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에 칭의의 진리가 적용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기 쉽고 더 나아가 자기를 속이기까지 한다. 교회일, 선교일을 성공적으로 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위세를 부리거나 흔적을 남기려고 자신을 다그친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소명'이라 부르지만 예수님은 '유혹'이라고 부르신다. 성전에서 뛰

어내려 능력을 보이고 돌을 띄고 있는지만 중요하다. 나우웬은 이렇게 고백한다. “장애인들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맨 처음 나를 놀라게 한 일은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때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업적들하고는 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데 20년 동안 노틀담, 예일,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교파를 초월한 나의 세계적 활동들도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자 정체성의 기초는 성공이나 효율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안 따라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섬기는 그 일이 눈에 보

고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성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해서 증거 할 수 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때에도 말이다.

사실, 남의 눈에 띄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하나님의 사랑에 정체성을 둔 사람은 어떤 사적인 동기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론 긍휼조차도 성공이나 경쟁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긍휼이다.

장애인선교 사역자의 정체성은 예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선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으려하거나 남이 하지 못하는 장애인 선교를 통해 자신은 남보다 특별하다는 경쟁의식 속에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미주92@gmail.com

... 교회 예배와 음악

(14면에서 계속)

급기야 카톨릭교회에서는 반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 1545-1563년)을 통해 이 같은 이슈를 하나의 문제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교황 피우스 4세(Pope Pius IV 1499-1565)가 트렌트 종교회의(Council of Trent)에서 교회음악의 세속화에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음악이 상송을 패러디, 세속 선율을 정선율에 사용(Cantus Firmus), 악기의 무모한 사용, 그리고 가사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복잡하게 음악을 만드는 모방대위법(Imitation Counterpoint)을 사용한다는 것

등을 문제로 삼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된 것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는 다성음악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다성 음악이 폐지되고(일시적이었지만) 한동안 단선율의 음악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회음악의 역사를 보며 오늘날의 예배음악을 보게 된다. 이 시대, 어찌 보면 르네상스의 그 예술의 찬란함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때, 우리의 예배음악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며 축복을 드러내는 찬양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한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오늘날 예배음악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하고 송축하는 가사를 위한 도구로만 쓰여져야 한다. 너무 복잡한 리듬이나 하모니를 구성하려 노력하지 말고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자크 본 알멘(Jean-Jacques von Allmen, 1917-1994)은 그의 책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참 아름다움이란 정화의 도장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심미적, 자기중심적 미사여구와 비정상적 성장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우아함과 조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하고 송축하는 그 외침은 피조물인 인간의 소리(Human Voice)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너무 크다(물론 악기 혼자 연주할 때는 다른 것이다). 귀음이 가까운 전자악기들. 그것을 조절하는 음향기술로 더 크게 더 크게 만들어 한다. 이런 소리에 묻혀 인간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예배자들 자체의 소리가 우선이지, 인간들이 현대문명의 기술들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악기소리들이 우선이 아닐 것이다.

베리 리쉬(Barry Liesch)는 그의 책 The New Worship 에서 “예배음악의 본질과 기준이 어떠한 외적인 형식과 심미적인 내용, 혹은 어느 양식적인 탁월함을 근거로 한 것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고상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들 자체가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를 더욱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목적과 수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문명의 발전에 의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지라도 인간의 숨소리와 더불어 생기가 들어있는 그 생명의 울림. 그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 원하실 것이다. 비록 연륜이 깊어 노쇠

해져 가는 푸석 푸석한 쇠 소리가 되어갈지라도 말이다.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꾸미려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찬양하지 않았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소유하고픈 충동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예배음악은 너무나 예술적 아름다움의 깊이를 소유하고픈 탐욕에 빠져서 그 신비로움에 절대 복종하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음악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iyoon@wmu.edu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돌파하는 믿음, 간절한 매달림,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인/터/뷰

해외한인장로회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이민목회 위기,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무장해야”

지난 5월 11일 애틀란타 비전교회(담임 이재광 목사)를 본부로 중화상을 이용해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재광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가졌다. 이재광 신임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2020년 총회를 열지 못해 2년간 부총회장 직을 수행해왔으며 부족함을 미리 아신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이를 기초 삼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목사는 한국에서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에서 목회학석사학위(M.Div)를 받았으며 Th.M(설교학)과정

을 수료했다. 도미 후에는 Theological School of Drew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Homiletics Ph.D)를 받았다. 사역은 서울 소망교회(곽선희 목사) 교육전도사를 거쳐 할렐루야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도미 후에는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노회장, 총회 선교부장, 총회 부서기와 서기, 부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은신 사모와 사이에 2남(주섭, 주역)이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총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두 힘을 합쳐 총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신임 총회장으로서 1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

회를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원 선임은 바로 될 수 있는 역동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총

회 교단의 권위가 실추되고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훈계를 들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간 총회 내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 온 만큼, 진리를 수호할 것이며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 총회는 내부적으로 총회의 조직을 개혁함으로써 시간과 물질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금번 총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했음에도 대면 총회의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처리한 것은 우리 교단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사무총장 교체를 계기로 웹 정비를 비롯 행정적인 면

에서 보다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한 총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

-평소에 갖고 계신 목회철학은?

이민목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세대의 인본주의, 맘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 쾌락주의가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이민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영적탈진이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성도들과의 영적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교회를 올바로 세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원정 기자)

역동성 최우선하려 젊은 임원 등용 교단헌법 앞에 평등하게 진리 수호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 소통 이루길

노력하기를 당부 드린다.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이 부회장직을 두 번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다. 아마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연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연단을 기초 삼아

과 비전은?

이민교회 상황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교인수가 줄어들고 동시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런 교

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다. 재능 있고 젊은 임원들이 세워진 만큼 더 역동적이게 1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 교단들마다 진리가 위협받고,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책소개

공동저자 박성현 교수, 장현경 사모

“한 달란트”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인 박성현 교수와 장현경 사모의 공동저서 ‘한 달란트’(두란노출판사)가 최근 출간됐다. ‘작은 자였기에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한 달란트’에는 박성현 교수 부부의 간증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

시켰고 나처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지나고 보니 한 달란트를 받아 살아왔다. 왜 한 달란트일까 싶고 때로는 차라리 땅에 묻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 달란트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달란트의 주인인지가 핵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준다. 본서는 Part 1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Part 2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는 땅으로’ Part 3 ‘작은 자여서 누리는 기쁨’ Part 4 ‘한 달란트의 기적

을 맞보다’로 구성하고 1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그 안에 3-6개의 이야기들을 수록한 글을 속에는 놀랍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증

거하며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는 추천사를 통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신 달란트를 극대화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는다”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A. 커리(고든콘웰 신학대학원 부총장)는 “저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독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게 하는 탁월한

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 한홍 목사(새로운교회)는 “읽고들 받고 빨리 들어가듯 단숨에 끝까지 읽었다. 우리의 자라는 영성에 시원한 폭포수 같은 충격을 주는 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책을 추천했다.

박성현 교수는 13세에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 이민자의 삶을 살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사업실패, 가난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이스라엘 고고학 및 인문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고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와 하버드대학교 근동어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현재 고든콘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

본서의 공동저자인 아내 장현경 사모는 이스라엘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니엘과 메튜 두 아들이 있다.

한편 박성현 교수는 오는 6월 7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간증집회와 사인회를 가질 계획이며 책의 수익금은 전액 남미출신 신학생들과 베들레헴바이블칼리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연락처: hyungjungjang@gmail.com (이성자 기자)

‘작은 자였기에 받아 누린 하나님의 큰 은혜’ 부제 누가 달란트의 주인인지 찾아가는 부부 간증 답아

시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는 “이 책을 넘길 때마다 저자 부부의 삶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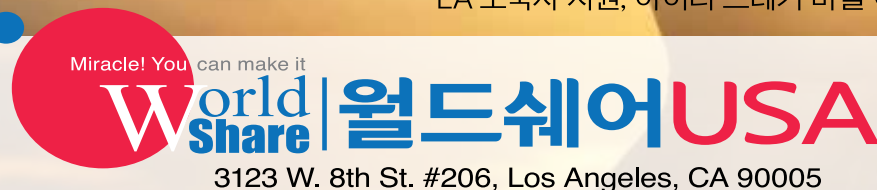
SHARING BREAD FOR SOUL 2021 사순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 종료 감사인사



노숙자들을 섬기고, 아이티 등 약소국 아동들을 돕고 도시빈민들(텐트촌)에 생필품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돕고 섬기고 나누겠습니다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월드쉐어USA는 UN과 함께합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한달에 \$30/\$35 소액 회원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T. (323)578-7933 [후원문의: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